

제41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14.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5.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16. 업무현황보고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농촌진흥청
 - 다. 산림청
 - 라. 한국농어촌공사
 - 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바. 산림조합중앙회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5
 - 간사(정희용) 인사 5
16. 업무현황보고 6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농촌진흥청
 - 다. 산림청
 - 라. 한국농어촌공사
 - 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바. 산림조합중앙회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충청과 경북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비탈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고립되었다 구조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를 대표해서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정부 당국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여야가 자리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농업 및 수산업·해양 정책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인사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여당이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만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이어서 다시 농해수위 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분들 또 어민분들 또 우리 농업 또 어업이 많이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어민·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해수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어기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에 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없이 토론의 협치, 협의가 통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농어촌의 현실 심각합니다.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충북의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어기구 위원장님 취임이지요. 취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 회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농해수위가 22대에서는 원만하게 그래도 좋은 상임위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또 어민을 위한 그런 우리 농해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좋은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입니다.

우선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정말 우리 농해수위는 모범적인 그런 상임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또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대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각 부처 기관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또 재판 대상으로 출석하시는 게 아니라 또 위원회의 하급 부서로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위원회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초·재선 때 함께 일했던 농해수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왔던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이원택 간사님 이렇게 뵈게 됐습니다.

저도 야당 시절에 농해수위에서 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그 어떤 상임위보다도 여야라는 정치적 구분 없이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서 농민과 어민을 위한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 온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 등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유능하고 칭찬받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약속은 지키구 이름은 어기구, 위원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민들, 어민들을 위한 위원회라서 전통적으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와 타협을 해 가면서 했었는데 사실 22대에서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21대에, 21대에 그런 면에서 좀 단독 법안 상정도 많았고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뭐든지 예전의 전통을 다시 찾아서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배려해 가면서 농민과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로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심정이구요.

지금 위원님들 구성이 민주당이 열한 분이고 우리가 일곱 분이라서 머릿수로 밀면 그냥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 따지면 둘 다 21선,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대화와 타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잘 화합하고 타협해서 좋은 상임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름이 좀 너무 길니다. 그렇지요? 이것 좀 줄이는 것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못 외우겠어요.

보통은 시골, 농촌에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안들을 좀 더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께서,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공정하게, 여야를 좀 더 공정한 시각에서 사회를 봐 주시면 우리 어 위원장님의 이미지에 맞는 후덕한 그런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딱 보니까 벌써부터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나뉘져 있어요, 위원장부터 파란 당 딱 해 가지고. 이것 행정실장님, 이렇게 편 나누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색깔을 왜 넣습니까, 색깔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라도 조금은 정쟁 없는,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상임위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18개 상임위 중에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도 약자로는 농해수위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

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좋은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이원택 위원님을 간사 위원님으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간사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정희용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정희용) 인사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 위원님 멋진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반대 없이 선임해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21대 농해수위에서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 주셨던 어기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21대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또 같이 간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농민·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 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회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대 첫 업무보고인데 22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농림부 또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장관님들과 대표님들 그리고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 말씀 감사합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문제에는 정회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양 간사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공춘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이하 입법조사관들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입법조사관들이 많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양 간사님들 간에 소위 구성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자 하는 소위원회를 위원장에게 알려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습시다만 아직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회의 중에라도 양 간사님들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쪼록 조속히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정된 법률안 상정 및 소위 회부 절차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

16. 업무현황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바. 산림조합중앙회

(11시15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6항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생산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지 쌀값 및 한우 도매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쌀 생산 농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지난 6월 24일 지역농협 RPC와 축산 농가의 생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농정 및 축산 정책이 현실과 크게 괴리에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정책 당국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농정 방향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쌀 생산 농가와 축산 농가의 고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부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법, 그린바이오산업법 등을 제정하였고 예산도 국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구조 재편, 식량안보 강화 등 미래를 위한 과제들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도 121억 3000만 달러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데이터솔루션 보급 등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시설·자금 지원 등 농업의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와 농산물 수급 불안,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소멸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이 기계화·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솔루션을 확산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나 농지 위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기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위험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복구 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세부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콩·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농식품 가격 수준은 3월 정점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하여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인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의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등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계열사의 자율적 가축 방역관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렘피스킨,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사회·경제 서비스 등 농촌 구조를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올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 지원 기관 등을 구체화하고 농촌지역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을 95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산지 규제 완화, 세제 특례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빈집 재

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2만 1000ha를 해제하고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관리 강화, 동물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지자체 보호센터 11개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민간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기질평가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을 안착시키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 동물병원 전문 의사 및 상급 동물병원 체계 구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5월부터 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 등 재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배수시설 등을 사전 점검했고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보강, 생산시설 개보수, 방상팬, 환기·차광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노지채소는 비축, 배추 예비묘 200만 주 등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 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축산물도 축종별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식품·외식 물가도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쌀값을 위해 지난 6월 21일 15만t의 재고 해소를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확기에 대비하여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넷째,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사육 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9.5%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과잉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 왔습니다.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제22대 국회와 함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식품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수 차관입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전한영 대변인입니다.

박선우 감사관입니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입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입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입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입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입니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입니다.

이승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기구**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임상섭 산림청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취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기관장께서는 우리 농림업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와 위기를 직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퇴임하신 한훈 전 차관님, 조재호 전 농촌진흥청장님, 남성현 전 산림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한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신임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존경하는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7월 8일부터 농촌진흥청장직을 수행하게 된 권재한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힘든 시기에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 기술개발·보급으로 농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여름철 잦은 강우와 폭염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면 영농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과 정밀농업 확산을 위해 노지·시설·축산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9개 노지작물 주산지에 농작업 자동화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육관리기술 확산을 위해 작물의 생육 특성, 재배환경 등 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팜 기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용을 확대하고 지난해 준공한 농생명슈퍼컴퓨팅센터를 통해 디지털육종 등 생명공학의 핵심기술과 연구역량을 확충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부산물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사이클링과 기능성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식량주권 확보 지원입니다.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로미2 품종의 수발아 현상을 개선한 전주695호의 지역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조기경보 기능을 탑재한 수발아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미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밀 품종을 육성하고 수량성과 내습성이 좋은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개발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이상기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원예·축산 등 분야별 국산 신품종을 육성하고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과 함께 저장·유통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보급 등 농산물 수급과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입니다.

기계화가 덜 되어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밭작물을 중심으로 파종·수확 등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중심의 농업용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농업기상 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고온, 일조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육성과 경종·축산 분야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야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 안전한 농약·비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활력화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 육성, 농촌 생활공간 데이터 구축 등 농촌 재생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치유농업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도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부의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을 위한 벼 우량종자 생산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 병해충 대응 등 현안 해결 핵심기술 도입과 디지털, 기후변화 등 선진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농업 분야 국제농업기술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기수송 과정의 선도유지·위생관리 기술 보급 등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영농 추진입니다.

현재 주요 작물의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앞으로 폭염이나 호우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하여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78%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찰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매몰지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청 전 직원은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켜 활기찬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효원 차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진흥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임상섭 산림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자로 산림청장에 임명된 임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처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룩한 국토녹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국가의 당면 현안인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우리의 숲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여 임업인과 국민, 현세대와 미래세대, 도시민과 산촌주민, 인간과 생물 등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원인별 예방활동과 첨단기술에 기초한 과학적 진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 피해면적을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림과 주변 사면의 재난 위험을 산사태 정보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각종 돌발, 외래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를 산림 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목재 이용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감축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생식물을 활용한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산림산업을 활성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등 각종 지원 정책과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등 과학기술 접목과 첨단 연구개발로 산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림휴양·치유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고, 치유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정원 등 녹색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자협력, 다자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의 국토녹화 경험을 살린 산림협력을 전개하여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의 국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맞아 산사태를 예방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에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 오늘 참석한 산림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입니다.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심상택 산림복지국장입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입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입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림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전체 공공기관이 다수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출석한 기관장만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와 소속 간부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첫 질의는……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약간……

○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료 요청 때문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위원 제가 조금, 업무보고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 내용이 R&D 예산 관련입니다. 사실 농업·산림·해양수산 쪽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넘긴 증액된 R&D 예산 요청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처 단계에서 지금 R&D 예산을 각 산림청, 농진청, 농식품부 또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R&D 과제를 어떻게 요청했는지를 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자료 요청을 오늘 중에 끝나고든 아무튼 오늘 중에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원택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청에서 이원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오늘 사실 22대 국회 우리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고 오늘 오신, 우리 농해수위에 배정받으신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 회의기도 한데, 그 전에 야당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관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를 하고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회의 진행상, 시간상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적어도 기초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업무 중, 내용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제가 보고받기는 야당 간사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좀 시간 제약상 이렇게 생략하고, 이미 보고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던 거고요.

우리 간사님들, 이만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고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처음에……

○이만희 위원 아니, 이번에 두 분 간사님이,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으면 그대로 가시는데요. 다음부터라도 저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받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원택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장관님 이하 각 기관장님들한테 자료제출을,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제출을 저희가 이 인쇄된 파일 문서로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다른 상임위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상임위는 메일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들이 일찍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상임위만 모든 문서가 이렇게 인쇄된 자료로만 넘어오는데 이리다 보니 저희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대단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쇄된 것으로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전자메일을 통해서라도 미리 배포를 좀 해 주시면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에 접근하는 데 조금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굳이 모두 다 인쇄된 것으로 해서 세 부씩 이렇게 각 의원실에 배포하는 것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료를 주실 때 이것과 동시에 저희 메일을 통해서 위원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앞으로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반갑습니다.

22대 총선 1호 당선자로 기록된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미령 장관님께 최근의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미령 장관께서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매년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친 총비용은 매년 3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최근에 장관님께서 언론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은 역대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체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하지만 당시 우리가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지난 4월 18일 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좀 완화를 해서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으로 작년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

관리법하고는 달리 시장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또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관님, 어떠세요? 농민이 없으면 농식품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농민의 고통을 줄일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재정 당국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여론 호도형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대답을 지금 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문금주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양곡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부권 이야기는, 쌀 의무매입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첫 번째로 재의 요구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금주 위원** 잘 알고 계신데 왜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무매입이라는 본질은 이전에 재의 요구를 하였던 법의 내용과 같다, 본질은 같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금주 위원** 기준가격을 농림부에서 정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양곡법하고 농안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양곡법의 경우에는 의무매입에 관한 것을 ‘하야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장관님께서는 언론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는 없으시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쌀의 매입·보관비가 1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 기준을 가지고 쌀을 의무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 4000억이 추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을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나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농림부장관님께서 이런 막말에 가까운 ‘농망법이다’, 야당은 장관님 안중에는 없으신 모양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문금주 위원 ‘농촌의 미래가 없다’,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 이런,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어찌 됐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 주는데 장관님께서 좀 더 농민의 편에 서서 완화된 표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찌 됐든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지금 양곡법과 농안법이 합쳐져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만 양곡법에 대해서 3조 원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안법의 경우에도, 양곡법·농안법이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쌀·콩 재배가 일어나면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다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긴급한 수요에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금주 위원 앞으로 발언을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업무보고가, 쌀값·한우값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다음 김선교……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2대 국회 여야가 첫 번째 하는 회의입니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열심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합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꼭 준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1분 더 주시는 1분은, 그 1분 안에 마무리해야지 그 1분이 지나고 또 계속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너무나 없는 상태에서 7·5·3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조금 양해의 말씀을……

○서삼석 위원 왜 나를 보면서……

○정희용 위원 이원택 간사님 보고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제가……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추가로 드리는데 이것은 마무리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바랍니다.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중요한 것은 영세농 또 청년농, 미래 농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지요?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일인당 연 쌀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6.4kg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한 5년 이렇게 지난 것 보면 앞으로 계속 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주는 추세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그 5000만이…… ‘약’입니다, ‘약’. 5000만의 연간 소비량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60만t.

○김선교 위원 한 291만 6000t입니다. ‘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쌀 생산량은 얼마라고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70만t입니다.

○김선교 위원 370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한 80만t 정도 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작목 전환이라든가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목 전환을 시킨다든가 제가 이따 질의는 하겠지만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쌀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1만 9000ha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2만 6000ha 감축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락작물이라 그래서 쌀 이외의, 밭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글썄요. 보니까 밀도 있고 잡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 가면서 근본적인 쌀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일으켜 가지고……

정말 양곡관리법이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 또 정말 질적이나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우법 있지요, 한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얼마 전에 여기 여의도에 와서도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대규모 시위를 했고요.

지금 한우가 몇 두입니까, 대한민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50만 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건 360만 두인데……

적정 수준이 얼마입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00만 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300만 두면…… 지금 제일 문제가, 사료 안정화가 최고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또 유통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소값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서 소고기를 사 드시는 것하고 차이가, 갭이 상당히 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우를 보면 투 플러스는 해야 조금 이익이 되고 원 플러스 정도는 현상 유지되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1등급·2등급·3등급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농가들이 정말 활기 있게……

우시장에 자주 나가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시장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시장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시장 한번 가 보시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특히 일선의 관계 공무원들, 특히 축산협동조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 다녀 보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대해서 21대 때도 질의를 하면 대한민국의 진흥지역이나 비농업진흥지역이나 50% 대 50%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황을 지자체별로……

거기 나와 있지요, 지자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나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계가 나왔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해 주실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는…… 벼농사 같은 것은 특히 현장에 나가 보면 5만 평씩 짓고 대농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쌀농사,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또 양곡관리법하고 하나의 연계가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다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좀 연세가 들고 이래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공직을 퇴직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연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연금으로 해서 그래도 노후의 생활이 좋은데, 순수하게 농업이나 또 어업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분들은 노후에 아주 거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문대림 위원이라고 합니다.

개원 한 달이 지나서야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의 증가,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 폭증하는 농어업 경영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농촌 청년들의 이농 현상, 고령화 현상 등에 대한 시급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 시기는 저는 22대 4년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취임도 2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10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9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말도 안 돼.

○문대림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서삼석 위원님……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의 의원님들인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맞이하는 여론의 감도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장관님이

9점을 얘기하시지만 저는 1, 2점도 주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좁혀 나가야 된다,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농림부와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쌀값 하락의 문제, 한우값 폭락의 문제, 예견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농안법, 한우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얘기가 되고 있는,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농림부장관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용어 선택, 얘기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정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서는 아까 문금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네 번의 발언—4월 30, 5월 14, 5월 14, 5월 16—이것은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절제되지 못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다. 장관인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내고 그러한 약간의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쟁의 선봉에 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사과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절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먼저 용어 선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거부권이……

○**문대림 위원** 저희가 그러면 농림부를 농망부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망부는 아니지요.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에 근거를 해야 하니까요.

○**문대림 위원**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것을 농망법이라고 하면, 농망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게 장관이 쓸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지요.

○**문대림 위원** 그것은 입장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제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그래서 표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부권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재의 요구입니다, 재의 요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다시 논의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신 거고요.

○**문대림 위원** 거부권이라는 얘기 자주 쓰지 않았고요. 저는 장관께서 쓰신 용어에 대해서 좀 절제되고 정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시작해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저 나름으로는 매우 절실한 표현이었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절실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절실한 표현입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는 더 절실합니다. 아스팔트에 나가 보십시오. 농어촌으로 나가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장을 보면 안 됩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농가소득 5000만 원 넘었다, 달성, 이게 얼마나 궁색합니까? 2001년 문재인 정부 말기와 비교해 보세요. 정작 중요한 농업소득이 어떻게 됐는가,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이익이 되는 이런 내용을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전소득이 좀 늘었다고 해서 반짝했다고 해서 5000만 원 늘었다, 최고의 성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내용 올려놓는 것 저는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가장 큰 문제, 마진, 채산성, 저는 마이너스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의 문제, 불어나면 좋지요. 증가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실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실패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 농산물 들여오기를 반복하고, TRQ나 할당관세에 쓸 예산과 노력을 가격안정이나 경영비 지원에 쓰는 쪽으로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할당관세를 하는 경우는 국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문대림 위원 불안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정적으로 작목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잖습니까. 왜 농민들이 투기성 작목 형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접근 가능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은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어기구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문대림 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소득 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1000만 원대에서 늘지를 앓고 있는데요, 이 농업소득을 늘리는 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잠깐……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원택 위원 예.

7분 이후에 1분 정도 마무리 시간을 갖게 해 온 것이 우리 농해수위의 기존 관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로 1분 쓰는 것은 다음 5분, 3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5분 질의하고 1분 정도 마무리해 왔고요, 또 3분 질의하고 1분 정도 마무리해 왔

습니다.

그래서 그 1분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쓰는 건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1분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는 7분 안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쌀 문제, 솟값 문제,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물논의 벼도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합니다. 모든 농작물이 그런답니다.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고 또 우리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님들이시고 뒤에 앉아 배석하고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의 땀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름휴가 언제 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8월 중순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촌의 농민들, 어민들한테 휴가 언제 가시냐고 여쭙보면 제가 뽀 맞을 얘기가 아닐까요?

봉급날은 언제예요? 농민들 봉급날이 언제입니까?

소득도 없고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고 학교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없어지고 예식장도 없어지고 미장원도 없어지고 이발소도 없어지고, 늘어난다고 표현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장례식장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목도를 해야 할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입장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7년째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관장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송미령 장관님에 대한 평가도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하고 취임 이후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의 모델이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고통, 불편,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헌법에 우리 농어민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봐 봤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평등할까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우리 농민들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게끔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안 지키는데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면 뭐가 해결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2022년 9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산물은 시장의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몰랐습니다.

○서삼석 위원 앞으로 농산물이 시중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꿈에서라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각료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대통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한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4년 연속 농민들,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년 후에도 농업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56.9%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장 농민들 얘기예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장관의 인사말씀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전망이 없다라고 현장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데 농가의 소득, 경영안전망을 튼튼히 한다,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빵점인데 강화하겠다, 헌법 제123조 4항에 나와 있는 수급관리체계 선제적·자율적으로 한다고는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송 장관만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역대 장관들이 본 회의장에 와서 다 한 얘기예요. 순서만 바뀌고 단어만 살짝살짝 바뀌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나……

정말 법 앞에서 평등한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또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은 지역을 위해서 만든 상품권이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권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 해요, 노력을 안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서삼석 위원 지역화폐 관련 역대 농식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및 서신이 있냐라고 물으니깐 없다고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주에도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자료 낸 이후로 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이 자료 작성한 사람 혼나야 되겠구먼.

정말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 지역 주민들을…… 그 지역사랑상품권

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협의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쌀 담당 식량국장님 나오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식량정책관입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쌀 수매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6월 21일 대책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박덕흠 위원** 5만t 매입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부가 5만t 매입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21대에서도, 이 쌀값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정부에서 아마 약속을 했었지요.

뒤에 계신 우리 기관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전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 쌀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6월 25일 자 18만 6376원이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20만 원…… 떨어졌잖아.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최명철** 예, 수확기 대비 8.6% 떨어졌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전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쌀 가격을 20만 원 선을 유지를 시켜 줘야만 우리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를 못 하면 결국은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분이.

저도 지역에서 20만 원 선은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장관님, 이거 20만 원 선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지금 10만t을 사실 작년에 11월, 올해 2월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금 5만t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재고는 농협에 재고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 농협에서 또 10만t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요.

올해는 산지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아예 쌀 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감축 노력을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박덕흠 위원** 글썄,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도 일환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5만t 할 때 10만t을 수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5만t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쌀뿐만 아니라 지금 인삼, 양봉 또 한우, 기타 등등 다 가격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인삼 가격도 폭락을 한 것 아니잖아요? 양봉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21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수진 실장님 계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실감을 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정말 확대를 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81억…… 작년에는 제가 얘기를 해서 81억으로 증액했는데 그게 224%가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한 몇천억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곡관리법을 안 하시려면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채소가격안정 있잖아요? 이거. 안정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이것 폐지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왜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경향신문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채소가격안정제가 수급조절도 하지만 또 수입안정보험과 겹치는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되고 나면 채소가격안정제의 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박덕흠 위원 절대 폐지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농가들도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소득 안정을 위해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요 채소……

○박덕흠 위원 아니,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채소가격안정……

○박덕흠 위원 소득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는 재해보험뿐인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본 사업화 하려고 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한우 농가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소 한 마리당 120, 142만 원 이렇게 손해 본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는지요.

화면 좀 띄워 봐요.

이렇게 142만 6000원 마이너스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게 지금 19년도 9월부터 한우를 좀 그만 입식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이런 사태가 온다라는 것을 정부가 계속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9년, 20년 코로나 무렵에 외국여행을 안 가시는 국민들의 한우 소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한우 가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입식을 많이 해서 가지고 지금 굉장하…… 도축 마릿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도 지금 2년간을 따지면 한 7000여 가구가 폐업했거든요, 7000여 가구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우산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마무리……

○박덕흠 위원 한우산업이 정말 몰락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 가격 보면,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보면 이게 곡선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 곡선을 그릴 때 정부에서 그것을 잘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12년 전인가 아마 그때도 한 번 폭락을 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랬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장관님, 이 한우법…… 그러니까 축산법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축산법을 개정하여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도 이 축산법을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프랑스 또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되면 또 가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덕흠 위원 영향이 없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점심시간에 자료제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장관님 자체평가하는데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10점 만점에 얼마냐고 그러니까 9점 만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오만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농정과 관련해서 특히 현안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들이 언어의 유희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은 보고인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쌀값 20만 원 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실행계획 이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예, 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쌀값 20만 원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사업별 이행계획 또 농식품부의 조치내역 또 20만 원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아직 제출이 안 돼 있고요.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공약과 관련해서 이행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전임 장관에게도 요청했고 현 송 장관님께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또 최근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소요내역,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위한 TF 구성 여부, 그동안 회의한 내역,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의 추진의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제출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업무보고,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제가 본질의 하기 전까지 이 자료들이 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각별히 좀 챙겨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위원장 어기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식사 전까지 좀 주셨으면…… 아니, 오후 시

간 개회 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1차 양곡관리법을 냈고 2차 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위원장님 저희가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영향분석을 1차 때는 농경연이 했었거든요.

농경연 그때 그 해석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2차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한 영향분석 자료가 있는 건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한 건지, 했다면 그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오후 2시…… 오후 개회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는 것을 왜……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장관님께서……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늘 자료요청 때문에 회의 개시 시간에는 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관님, 각 부처 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가능한 주셔가지고 우리 상임위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잘 점검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숨 좀 쉬고요.

○위원장 어기구 예.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식사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식사는 밥으로 하셨어요, 면으로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밥으로 합니다.

○송옥주 위원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역의 농민들 만나다 보면 식사를 뭐로 했는지에 대한 아주 걱정이나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쌀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절실함, 절박함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땀길 처방이고 단기 처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15만t의 재고 처리 방안을 주장을 하셨는데 농업계가 요구한 물량보다도 턱없이 부족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또 이 15만t 가운데 10만t은 실질적으로 농협에다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농협에서 이 쌀 재고와 관련해서 몇십억에서 수십억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농협에다 이런 부분들을 떠넘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림부에서 발표한 수입안정보험,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소비 촉진 사업 등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동안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한 사업을 재탕하는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장관님도 이것 알고 계세요? 다 이게 계속하던 사업인 거지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입안정보험의 경우는 시범사업을 하던 것을 본사업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입안정보험을 아마 주요 산업 안정화 대책으로다가 발표하신 것 같은데 또 실효성에도 의문이 아주 큼니다. 가입률이 3%밖에 안 되고요, 가입 보장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지역도 한정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정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장관님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데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송옥주 위원** 아니, 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격리하는 15만t도 그렇고 수입안정보험이나 지금까지 얘기한 안정화 대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쌀값에 대해서는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에 비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상황을 말씀.....

○**송옥주 위원** 쌀값이 아니고요 이 쌀값 안정화 대책이 다 땀질 처방이고 기존에 있는 농림부의 사업을 열거한 수준이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쌀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수급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지 생산량과.....

○**송옥주 위원** 장관님, 저희가 질문 시간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100번 이상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필요한 쌀값 수급 대책과 관련된 현장 방문은 딱 1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값이나 한우값 관련된 부분들이 농림부나 아니면 농촌의 지금 가장 주요한 이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시중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양곡관리법 관련된 후속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송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방송 출연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동안 한 24건 정도의 언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의 14건이 이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한 58%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것 알고 계셨

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여러 이슈가 섞여서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여러 이슈가 돼도 요맘때 양곡관리법이 주요 이슈니까 많은 언론에서 양곡관리법 중심으로다가 그 부분을 보도를 하거나 많이 그랬겠지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렇습니다. 58%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농림부장관의, 주무장관이신 송 장관께서 실제로 보면 농민들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농민들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고서는 어떻게 장관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막말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가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는 농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농촌에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농민들을 더 피명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들을 다독거리고 이해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좀 더 세밀하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 나가서 주무 부서의 장관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농업인들의……

○**송옥주 위원** 이것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언제나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송옥주 위원** 언제나 경청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 농민을 정말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하시면서 그냥 숫자만 올리고 방문 현장, 현장 방문에 대한 횟수만 올리시는 것 아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쌀과 한우와 이런 현장 농업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잘 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나……

○**송옥주 위원** 이 방송은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장관과 공무원들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국회방송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전체회의 질의응답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농민들이 보고 계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동안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관께서 그 막말한 부분 그리고 농민들을 무시한 부분, 농민들을 덜 만나고 농민들의 의견을 덜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좀 오해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오해를 하계끔 장관님께서 하신 거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농업인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어느 현장을 갔느냐를 가지고 나누시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옥주 위원** 소통을 하셨는데 이런 안정화 대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열거하듯이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안정화……

○**송옥주 위원** 저희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지만 아주 소소한 거라도 주민과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서 작은 거라도 해결을 합니다. 이 수입 안정화 대책과 소득 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여기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소통이 잘못되고 해결책이나 대책 마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민·관·학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께서 계속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정 정책이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9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겸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정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정책을 잘하신 장관님들이 그동안 점수를 몇 점으로 하느냐 그러면 10점 만점에 6점, 7점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점 만점에 9점을 얘기하세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들을 반성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농민과 또 농업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나 이런 시각 자체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한우를 비롯해서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현장 농업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곡법, 농안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데, 제안하신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망쳐질 수도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무시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장관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농민들이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농업인들 불안하지 않게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경청을 해서 지금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세부 방안 저희가 마련한 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방식의 대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우리 쌀값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쌀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45만t 시장격리를 조치한 걸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약 20만 원대 쌀값이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오전의 답변 내용 중에 6월 15일 자 18만 7000원 지금 현재 쌀값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6월 21일 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발표했습니다.

15만t의 재고를 처리하는데 5만t은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10만t은 지금 이게 수급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의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이 참여하여 그 재고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역대 정부부터 즉 진행되어 오는 쌀 시장격리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시기와 적정 수급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쌀값 안정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비량 대비 10만t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값이 아주 비등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31만t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21년도 가을부터 쌀값이 들쭉였습니다. 그때 농민들께서 시장격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 외면했다, 그것을 외면하고 난 이후에 22년 2월부터 추가 격리에 들어갔고 또 물량을 세 차례 나누어서 분산 격리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0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초청된 전국쌀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쌀 자동 시장격리를 비판한 연구 결과 또한 동일하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쌀값 부분이 특정 정부 또 특정 시점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텃을 가지고 수급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발의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지금 개정안하고 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전의 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의 3% 초과, 가격의 5% 하락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식량안보 부분이 국가의 큰 과제로 지금 대두가 되는데 2023년 우리 쌀 자급률은 84%를 상회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늘어난 밀, 콩 같은 경우에는 밀은 1.1%, 콩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논에서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밀, 콩의 전락작물 재배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또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양곡법에 대해서는 일방 독주한다 해서 62개 농업인 생산단체에서 47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부처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체감물가에 크게 영향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물가 안정에는 농산물의 수급 관리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유통구조 개선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고 그렇지만 현실은 유통비용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의 경우 1000원 주고 사과 구매 시 626원이 유통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 유통사업 관련 사업이 31개 사업에 2022년에는 2조 1000억, 2024년에는 1조 7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증가가 되는데 실제 유통비용은 늘어난다, 이걸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비용이 선진국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통 과정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도 새로운 유통 경로로 새로 열어서 그 규모를 가락시장 규모로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aT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사과 하나 생산자가 2200원에 수취를 하는데 소비자는 6000원을 주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를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지 공판장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 소매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 또 여러 가지 규정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미령 장관님, 정부의 대국민 약속 지켜져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더더군다나 대통령까지 약속했다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지난 23년부터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이걸 재량으로 놓다 보니까, 정부가 안일하거나 시장 실패를 부추기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농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의무 시장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21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기재부를 동원해서 ‘이게 농민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그때 선언하고 발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시점에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준병 위원** 누가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보장한다고 약속했나요? 대통령이 보장했습니까, 그렇게? 누가 그렇게 보장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정황근 장관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발표하면서

그때 18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수확기까지는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수확기 20만 원만 보장하고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않겠다’ 이런 보장을 누가 했어요? 왜 그렇게 호도합니까?

10월 달 쌀값 20만 원 이후에 하락세를 유지하니까 장관에게도 20만 원 내려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송미령 장관 인청이나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쌀값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보완하겠습니다. 빠른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안 됐잖아요. 약속 이행 못 한 것이지요. 그것 인정 안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해서……

○윤준병 위원 아니, 산지 쌀값 하락이 아니고 쌀값 20만 원선 유지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었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금 2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안 됩니다.

○윤준병 위원 안 됐으면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부인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못 지키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윤준병 위원 왜 답을 못 합니까?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8만 6823원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 수확기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지키고 평균으로 따져도 여러분들 못 지켰어요. 작년에 1년간 7월부터 6월까지 지금 19만 5000원 수준이고 송 장관 취임해서 나온 이후에 19만 2000원 미달됐고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해도 19만 2000원대예요. 어디에서 2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20만 원 유지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뭐 수확기라고 핑계 대고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핑계 대고…… 아니, 공직자가 목표를 정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 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 아닙니까? 그걸 못 하면 무능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 왔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장관 임기가 1년 내외인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이행을 못 했는데 시간을 더 주면 이행합니까?

책임질 의향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책임지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사표 내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대통령이십니다.

○윤준병 위원 좋아요.

○박덕흠 위원 장관님, 지금 쌀값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쌀값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사표를 얘기하니깐 그러지.

○윤준병 위원 아니, 사표 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지요. 20만 원 유지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하고 대통령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1년 이상 지나고,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개정됐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대통령께서……

○윤준병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양곡관리법이 개정됐다면 지금처럼 방치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양곡관리……

○윤준병 위원 양곡관리법 개정됐다면……

10월 달에 양곡 수준이 21만 원 수준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23만 원이 적정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20만 원 유지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전체 평균으로 8.1% 낮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4.3%가 낮아요.

그러면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5% 내지 7% 인하되면 시장 개입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시장 개입했겠지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의무매입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이 의무매입을 적정하게 해서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이 의무매입을 하지 않도록 사전 제어하고 시장격리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18만 원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더……

○윤준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6월 25일 날 발표한 내용이 15만t 시장격리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월 21일입니다.

○윤준병 위원 5만t 정부가 하고 10만t 농협에서 하도록 하겠다.

민간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민간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윤준병 위원 70만t이에요. 모르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70만t인데 15만t 격리해서 쌀값이 현재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언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항상 쌀값 이렇게 정부가……

○윤준병 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내내 20만 원 미만으로 돌다가 반짝 효과해서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1년 내내 하향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쌀값이 하락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으로 의무매입을 한다고 하면 쌀의 초과 공급은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쌀값은 더 떨어집니다.

○윤준병 위원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 하지 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윤준병 위원 의무 격리를 하게 되면 의무 격리 요건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조정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의무 격리 안 되도록 쌀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의무 격리 자발적으로 더 합니다,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부가요?

○윤준병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건데, 만들자고 한 건데 그걸 정부에다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만 원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지금 20만 원선은 유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게 현재의 정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그걸 뒷받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양곡관리법, 농안법, 다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감안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선제적 수급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제적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못 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선제적 수급관리를 합니다.

○윤준병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에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작년에도 정황근 장관이 농안법과 관련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보충질의 활용하시고요.

○윤준병 위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숙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재량 매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량 매입을 해도 공급이 많으니까 쌀값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의무매입이라는 것까지 규정을 해 놓으면 초과 공급이 더 일어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쌀값은 더 떨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이 더 많다는 것이 제 생각이 고요.

그리고 저희가 3단계로 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서 생산량을 줄여 보겠다라는 시도를 올해 처음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윤준병 위원 작년에도 선제적 수급 조절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다음 질의 때 더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정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시작된 업무보고인데, 저는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 운영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방적인 진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장관님의 답변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정희용 위원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제가 추가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시율의 이병진입니다.

제가 당진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5만t을 격리 조치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10만t을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15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현지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장 소식을 장관님은 들은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5만 원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병진 위원 경기 이남에는 쌀값이 15만 원 이하로 시장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마다 쌀값이 다 다르니까요.

○이병진 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경기도도 20만 원, 18만 7000원 이하로 내려간 건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기 이남에는 16만 원, 1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는 현실을 묵도하고 이것은 심각성의 극치를 치닫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난 5월 14일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 그다음에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5월 16일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는데 이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 미래를 마치, 미래 세대에게 죄짓는 것이 양곡관리법인가요? 그러니까 양곡을 관

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이게 미래를 망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양곡관리법이 망치지는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이게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법안이거든요. 물론 거부권이 행사돼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시장격리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또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양곡법보다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법안이에요.

그다음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될 때 쌀 매입비가 매년 연 3조 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사실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라고 봤을 때 말이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적 수급조절 이것을, 이 정책을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격 폭락이라든지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재정 소요를, 더더욱 중요한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수정해서 낸 법안이에요. 이것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그건 봤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여야 한다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짓는 일은 우리가 국가의 밥줄, 쌀이라고 하는 것, 양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사실은 식량안보를 빼앗겨 가지고 나라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사실 죄짓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식량안보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양곡을 잘 관리하고 우리 209만 명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최소한 보장하자는 거지. 그분들을 호의호식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병진 위원 정치적 시각에서, 당파성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미명하에 무조건 그렇게 반대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면 이번에 새로 제안된 법 전향적으로 수용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의무매입 규정을 빼 주시면……

○이병진 위원 그것도 서로 협의해서 타협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제안했다고 자꾸만 뒷방에 물러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향적으로 마주보고, 대화는 마주할 대(對), 말씀화(話) 아납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협치를 이끌어 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저희는……

○이병진 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알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데……

○이병진 위원 한다고 분명히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장관님이 상당히 진중하시는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앞으로 이런 공공장소에 가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법’, 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의무매입……

○이병진 위원 망친다는 개념은 내용을 규정하는 건데 망친다는 걸 그렇게 진중하신 분이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삼재사 고려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법에……

○이병진 위원 고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침소봉대 아납니다.

○이병진 위원 망치긴 뭐가 망쳐요? 식량 주권을 뺏기는 게 망치는 거지요, 죄를 짓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안보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식량안보 달성 좋아요. 그러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병진 위원 설득력 있게 저한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작물에 들어가는 것은 쌀뿐만이 아니라 밀도 있고 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밀 자급률은 2%가 되지 않고 콩 자급률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쌀 자급률은 105%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쌀을 줄이고 밀과 콩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됐어요. 거기까지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곡물 자급률이 몇 %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2% 정도 됩니다.

○이병진 위원 19.5% 아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2%일 겁니다, 최근 자료로.

○이병진 위원 에비던스를 갖고 오세요. 바로 서면으로,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갖고

왔는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5%예요. 중국은 92.2%예요, 전체적인 자급률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중국은 올해 제가 리서치한 것에 보면……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위원장 어기구 예, 1분 남았어요.

○이병진 위원 시간이 금방 갔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하여튼 오늘 첫 대면인데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것은 쌍문이라고 하는 문금주, 문대림, 가장 열심히 하는 위원님 어디 가셨네.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역대 어느 위원회보다 협치가 잘되고 화합이 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과하고 유념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저한테 한번 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한번 해 보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사과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률의 본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 본질적인 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재량권을 우리 정부에 줬어요.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너로 몰아서 그냥 몰아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걸 해아리고 결정하셔야지요. 그렇게 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장관님도 시장을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일정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수급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필요한 소비량이 360만t이고 생산량이 370만t인데 그러면 10만t만 의무적으로 격리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유

지될 것이다, 그것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사실은 양곡법 관련해서 의무매입을 하자는 법안을 2017년도에 가장 먼저 제안했던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곡 가격은 마지막 수확기 가격이 3년 평균 14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양곡법에 대해서 의무수입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제가 야당이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그때 문재인 정권하의 농림부, 저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장을 너무 그렇게 쉽게 보는 것 아니냐, 가격 결정에는 그런 수급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재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진정성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도 2년 후에 심의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쌀값 안정시키는 데 시장격리만 하면 그 효과 다 나오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계절 진폭이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단정기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떨어져요. 그런 현상까지도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정한 재량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제가 냈던 법안을 정말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시고도 그렇게 다 막으셨어요. 이제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말들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2022년도에 우리가 한 18만 7000원 그리고 2023년도에 2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제 수확기 쌀값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양곡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민간 분야에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수확기에 얼마나 매입할 그 단가, 쌀값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부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인위적인 시장격리를 통해서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WTO의 농업협정사항에 심의의, 감축 보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현장이 굉장히 사실, 장관님 좀 미안하지만 5000만 원 이상으로 이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PPT 두 번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촌 현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 거래량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농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도별 농어가목 돈마련저축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계좌 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보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또 귀농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전반적으

로 농어촌, 농어업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양곡법이다? 저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직접 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뭐냐, 농지법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가의 전체적인 환경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제일 큰 요소가 양곡법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 포인트는 농지법이라는 겁니다, 농지법. 왜? 농지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로 갔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부동산 경기 전체가 줄어드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있었던 LH 땅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심리라 그러잖아요. 비록 그때 당시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 주말영농, 체험영농 다 막았지요. 그리고 취득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임대나 위탁영농하는 것 3년 이상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농지 취득하려면 자기 직업, 영농경력 등등 보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엄청나게 강화해 놓고 농지위원회의 심의까지 받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농지를 감히 사서 제2의 인생,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농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저축금리 높은 것 다 깨서 쓰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농협에 가서 대출 낼 때 뭘 담보합니까? 농민은 농지 아니겠습니까. 농지의 담보 가치가 줄어 들고 또 기존의 담보대출을 냈던 것조차도 그 가격이 떨어져서 농협 입장에서 연체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지역의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면 그 지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장관님하고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론회 하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에 있는 농업·농촌을 가장 어렵게 옥죄고 있는 것이 뭔가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농업·농촌을 사랑하지 않고 농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단돈 한 푼이라도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우리 정부 어려운 환경하에서 공익형 직불금 2000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2조 4000억 묶여 있는 것 3조 1000억으로 올렸습니다.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누가 했습니까? 그게 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농업·농촌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좀 보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공익형 직불금 5조 원 규모를 약속했고요.

제가 양곡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기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선제매입도 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수매를 하실 때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지요. 좀 더 어렵고 힘든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에게 적어도 그분들이 생산한 양곡들은 다 국가에서 사주는 수매 물량에 포함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수매량 줄어드는 부분들이 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지법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입니다.

오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깐 쌀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쌀 가격 지지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정하게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패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임미애 위원 어쨌거나 결국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농가에서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딘가에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치 때문에 자꾸 얘기가 있어서 이게 마치 반자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어처럼 지금 장관님 쓰시는데 자료 하나 좀 띄워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어떤 내용이나 하면요,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확 단계에서 자동적 시장격리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이고요. 매년 일회성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폭 확대 등에도 대비해서 소비량보다 101%, 그러니까 단 1%만 초과생산되는 경우에도 자동시장격리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그렇게 가장 친자본주의적인 시장정책을 펴 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쌀과 관련된 정책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이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2011년보다 쌀시장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재배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정책은 2011년보다 뒤로 가니까 조금 답답해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농업·농촌 현실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농가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을 밑돌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 수준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하고 이전소득으로 이 나머지 간극을 메우고 있는데 이전소득의 대표적인 게 지금 직불금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직불금입니다.

○임미애 위원 직불금의 경우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경작자한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농림부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업소득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데 농업소득으로 먹고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 입장에서 되게 부끄러워 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사실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자동시장격리제는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채택되지 않았습니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논의만 하고 채택되지 않았고요.

○임미애 위원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 쌀값이 그다음 해에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마련이 되었지만 그리고 논의는 되었지만 실제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니까 쌀 의무매입자하고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 뒤에, 그다음 해에 쌀값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리고……

○임미애 위원 어쨌거나 쌀을 의무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2011년도부터 논의된 바가 있다, 검토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논의는 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임미애 위원 그것은 쌀값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의무매입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이후에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다음에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경작자가 받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제도적으로는 경작자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임미애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주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경작을 하는 사람의 도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한 35%에서 40%를 도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현실을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고 그러나 직불금의 설계는 경작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아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농업소득 있잖아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22%인데 우리 농업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에만 국한된 것을 농업소득으로 한다면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농업의 범위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질의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에 있어서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장관님의 발언이 들렸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농업소득은 기본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소득을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책을 준비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것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1분을 더 주시고요.

지금 자료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역농협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보통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3% 넘으면 경고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가 넘습니다. 규모로 봐도 2조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한 적 한참 됐는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조합이 잘못될까 봐 사실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조합이 독립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한 농식품부에도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우유 가격 상한제를 했었지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했더니 우유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못 버니까 축산업자들이 젖소를 안 키워 가지고 암거래 시장에서 몇 배로 우유가 통용됐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 몇백 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옥수수 가격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농민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랬다가 옥수수 농가들이 토지를 계속 사들여서 옥수수 심고 타작물 재배하던 농가들이 전부 다 옥수수로 갈아타면서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왔었지요. 역사

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21세기에 이게 계속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렇게 물어야 동의가 나오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국방부에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를 2021년에 했는데 내년부터 군 급식 식재료 납품 방식이 완전 경쟁으로 갑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군부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규제를 묵묵하게 정말 감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것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가지고 군납 문제, 수의계약 비율 상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접경지역 농민들한테 엄청난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70%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저희 농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국방부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으시자고요,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농진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고맙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맛드림 품종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안 맞지 않나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수발아에 굉장히 취약한 품목이고 이 품종은 아마 경기도에서 개발된 것이 아마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지역 특성에 좀 맞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하여튼 다수확 품종이라서 종긴 좋은데 맛도 좋고 좋은데 재해에 취약하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게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농진청에서 계속 그런 종자 보급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발아에 강한 추천 품목을 해당 지역에는 추천을 했고요. 그 결과로 아까 말씀하신 맛드림 품종이 상당 부분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고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다수확 품종이라서 심지 말라 그래도 자꾸 심거든요. 그러니까 농진청에

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산림청장입니다.

○이양수 위원 취임 축하드리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임목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지금 법적으로, 법에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꽤 오래됐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201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양수 위원 실시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임목재해보험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왜 안 되고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재정 당국하고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법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이양수 위원 법을 근거로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법을 개정을 하고……

○이양수 위원 아니,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근거로 해서 재정 당국에 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이것 진행해야지, 산림청에서도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안 할 거면 그냥 없애 버리시든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이것 관련된 연구용역만 해도 3차에 걸쳐 가지고 계속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왜 안 하나고요? 임목…… 그 사유림 경영하시는 분들 산림경영 제대로 안 된다고 계속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양수 위원 특히 제가 큰 산불을 몇 차례 겪었는데 산불 지역 같은 데 가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서식 밀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런 데 관심을 안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해보험 있어야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 가지고 내산 내가 지키고 내가 가꾸고 하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양수 위원 이것 시범 예산이라도 올해 확보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청장 되셨으니까 하셔야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지임대 수탁사업 하시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이양수 위원 임차 농민들이 1년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공사에 예치하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분할납부해도 되겠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그러니까 1년 치를 분할납부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채권 확보 수단으로 매년 그것을 걷기가 어려워서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끌어 가도 되고. 그런데 이제 소액 임차인들이 그 1년 치를 미리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5년 치를, 5년 치 중에 1년 치 담보금을 이렇게 내면 그해 봄에 씨앗 되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 때 내야 되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할납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연말에 직불금 다 받잖아요? 그런데 직불금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주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직불금은 농관원에서 줍니다.

○이양수 위원 돈 안 내면 직불금 안 준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안 준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로서의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분할납부해 달라 아니면 연말에 좀 내게 해 달라 이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책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의원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봄에 만나 가을에 만나 마찬가지로 일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봄에 이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가을에 내자. 농민들 편의를 좀 봐주는 게 좋지요, 농어촌공사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질문 오늘 처음 받으시지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자회사 3개, 2개는 청산해야 된다면서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해외 법인 말씀……

○이양수 위원 해외 법인 둘 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지금 청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나머지 1개도 실적이 영 시원치 않고요. 상조……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자회사, 이제 해외에는 좀 그렇고요. 국내에 있는 그 상조

는 22년도부터 흑자가 지금 나고 있어서 현재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제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진천·음성·증평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양곡관리법 또 한우값 폭락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관님 아까 답변 중에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막지 않은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밀하고 콩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쌀 자급률이 105%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량안보 개념 중에 식량주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도 중요하지만 식량자급률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은,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벼농사가 망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농자천하지대본에서 사실은 농자라고 하는 게 저는 벼농사가 주축이라고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즉 설명하시는 가운데 3조 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에 대해 무척 반대 논리로 세우셨는데 연간 3조 원 정도면, 국가 세수 부족이 연간 막 50조에 달하지 않습니까? 3조 원 같으면 대한민국 벼농사 쌀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투입 가능한 정도의 예산이다, 벼농사를 꼭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쌀……

○임호선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쌀은 남아돌고 밀과 콩은 지금 우리가 더 재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쌀 남는 것을 밀과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자라는 이야기고요.

○임호선 위원 예, 대체작물로 유인하자는 데 대해서는 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쌀의 적정 생산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을 말씀하실 때 선제 매입을 하면서 시장격리를 할 때 그 3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벼농사를 지키는 식량주권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투입돼도 괜찮은 정도의 예산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도 쌀 보관 매입에 1조 600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

○임호선 위원 절대, 절대적인 예산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 정도로 말씀하시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문제는 의무매입이라는 것이 규정되는 순간 쌀 초과 생산이 더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쌀을 재배하는 유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임호선 위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향적으로, 제가 시골에서 우리 농민분들 만나면 진짜 정쟁 하느냐고, 농민만 피해 봤다는 하소연 참 많이 듣거든요. 시장격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5만t 중에서 10만t 같은 경우에는 정부 5만t을 제외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시장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방출에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 15만t에는 사실은 성격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위원님, 농가가 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은 쌀이 농협쌀입니다.

○**임호선 위원** 알고 있어요. RPC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한우값 폭락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22년도·23년도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융자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융자금, 이천……

○**임호선 위원** 2조 5000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조 5000억.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회장단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 연장 방안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경과가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년에 아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이것 나오는 대로 긴급하게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암소에 대한 긴급 시장격리도 마찬가지로 한우단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암소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임호선 위원** 방안이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검토되는 대로 내용 검토하셔서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혹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케이베뉴(K-Venue)

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케이베뉴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리는 들어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플랫폼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해당되는 건데.
테무라고는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테무도 들어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6월 이용자만 알리가 836만, 테무가 823만, 쿠팡을 제외하고 2·3위가 지금 이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우리 농산물이 다루어지는 것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한국 상품 판매를 위해서 만든 게 케이베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앱 다운받으셔서 검색이 바로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과일·소고기·돼지고기·해산물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9월까지 입점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농수산물 판매자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가격 할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품질, 원산지 표시 오류, 확실치 않은 판매자 정보, 또 가짜 정가 할인, 이런 상당히 시장 교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을 공유하신 바가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관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국 플랫폼 성장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 후려친다든지 그리고 또 정직하게 우리 농협이나 또 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는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정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께서 상당히 세심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다소 대책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시간 잘 마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산림청에서 평생 공직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 계속 근무해 오신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께서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세계섬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된다는 소식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섬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우리 여수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라든지 전남도민의 바람일 겁니다.

21년 8월에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전남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최초의 섬박람회를 개최하는 만큼 여수와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청도 이와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직은?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전남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요청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우선 저희 여수시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여수시가 섬박람회 주 행사장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지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숲 조성 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정원 페스티벌 조성 사업까지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섬박람회 관광객들과 또 여수시민들 또 박람회가 끝나게 되면 여수를 찾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림청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사업성하고 부지적합성 같은 것 검토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산지가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참 이상한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일반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시숲을 단순히 조성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순천정원박람회장처럼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작은 도시숲에는 일반 도시민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또는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보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도시숲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권 도시숲이라는 개념만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면, 도시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쉽게 갈 텐데 똑같이 걷는 길만 만들어 놓게 되면 평이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데다 체육시설 같은 것, 예를 들면 도시숲은 평지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숲을 거닐고 휴양하고 즐길 수 있게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다른 시설하고 도시숲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 것이, 꼭 좀 복합적인·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산림청에서 100%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라든지 다른 또 중앙부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제가 작년 때 질문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보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경고와 안내표지 안 된 것 그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국유림은 다 돼 있는데 사유림·공유림이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거의 다 설치가 됐더라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간판이 아니고 플래카드형으로 걸어 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항구적인 것이 못 되고 오래 못 가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물인 철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장관님, 저도 농산물 가격안정법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다른 부처 장관은 몰라도 적어도 농림부장관 같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야당 위원들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석에서 그냥, 비밀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한판 붙어 보자는 말밖에 더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심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근래에 들어서 지난달 19일에 기자간담회 열고 ‘한국은행의 물가 관련 보고서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박하신 건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들의 체감지수는 엄청 높아 보여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라든지 언론에서는 이것을 단골 메뉴로 자극적으로 보도를 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반박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논리를 세워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까 ‘농업 망치는 법이다’라는 말도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유감 표명하

시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하여튼 양곡법·농안법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철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하고 한번 불어 보자,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꾸 그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저는 정말로 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고요. 당시로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농업 미래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위원님들에 대한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철현 위원** 알겠는데요. 발언이 너무 지나쳤다는 그런 생각은 드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차원에서 지난 6월 11일 자 언론 보도 보게 되면 삼겹살 1인분 200g에 2만 원 돌파했다, 금겹살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반박하듯이 수정 보도라든지 농림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했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일이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겹살 2만 원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4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가 못 찾아봤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농민도 어루만져 주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주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정부가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근한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사례를 들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장관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게 살인진드기……

○**조경태 위원** 이게 영어로는 SFTS 해 가지고, 살인진드기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인진드기.

○조경태 위원 살인진드기 이게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이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하고 동북아시아권의 일부가,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게 연구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거기도 진드기가 있지만 거기는 살인진드기가 아닙니다. 치사율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살인진드기는 치사율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주로 이것 걸리는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질병관리본부 있지요?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질병청, 예.

○조경태 위원 청으로 바뀌면 뭐 합니까, 똑같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10년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도 아니었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주장을 했는데……

PPT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대로.

보시면 해마다 수십 명씩 감염이 되고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이 나서서……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주청을 만들 정도의 첨단과학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감염이 돼서 허망하게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장관님께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질병청하고 저희 검역본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의사사회 이렇게 해서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위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해야 됩니다.

○조경태 위원 이것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빠르게……

○조경태 위원 산림청도 이게 다 해당되는 부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것 해서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짜서 다음 회의 때까지……

지금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계속 연구만 하고 있어요. 저는 질병관리청장 이것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꼭 좀 장관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또 하나가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러시아만 예를 들어도 러시아는 주 5일 하고 이들은 항상 농촌마을에 가서 힐링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다차.

○조경태 위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차라는 것……

○조경태 위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게 1가구 2주택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에 묶여 그것 못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이것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그래서 농촌마을에 이틀 정도, 3일 정도 살 경우에는…… 그 지번 다 떼 보면 되잖아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1가구 1주택 또는 종부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한 거지요. 이것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얼마 전에 세컨홈에 대해서 세제를 혜택 주는 것도 한 것으로……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마을·농촌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1가구 2주택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 저희들 이런 것도 장관님의 철학과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같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있잖아요. 전국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사실 취합이 안 됩니다.

○조경태 위원 우리나라가 통계가 아주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 빨리 통계를 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을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

까 지하철역에도 스마트팜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게 좋습니까, 나쁠까?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상도역에 있는 메트로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제 생각에는요 혹시, 대기질 오염이라고 들어 보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혹시 지하철 안의 대기질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먹거리잖아요. 혹시 이게 실내 오염 또는 중금속 오염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냥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하고 계속 머무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스마트팜 안은 위원님,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요 저희가 들어갈 적에도 방역복 입고 들어갑니다.

○조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도 가 봤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역 안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산림청장님께서 ‘2023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에 생활형·연결형 산림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보면 ‘도시숲을 비롯하여’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도시숲을 좀 더 많이, 아름답게 많이 가꾸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 특히 서울만 예를 들면요 서울이 한 사람이 숲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낮거든요. 4.9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저는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서울시민이 거의 천만이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도시의 도시숲 가꾸기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좀 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도시숲을 좀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조경태 위원님도 시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전종덕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농정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다 해서 백 점 만점에 90점을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농정 평가에 대해서 90점을 주겠다 하셨는데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몰랐습니다.

○전종덕 위원 몰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현장을 너무 자주 가서 가지고 농민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자랑삼아 얘기하시던데 참 유감이네요.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 값 때문에 오른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달마다 수입 농산물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했거든요. 22년 6월에는 돼지고기 5만t 할당관세 적용했고요. 7월 달에는 축산물 무관세, 여기에 한우도 무관세로 10t 들어오지요.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할 것 없이, 감자 할 것 없이 해마다, 달마다 수입 농산물에 의존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잡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은 총재께서도 오히려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가 농산물 값을 떨어뜨리고 농가소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더 살기 힘들다, 수입 농산물에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이 정부의 농정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렇게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제가 현장에서 농민을 만났는데 어떤 농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트랙터 같은 기계도 땅을 고르게 할 때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해서 고르게 땅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기계만도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민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직불 5조 원, 공익직불금 5조 원 해서 지금 제가 기본 직불로 농가들에 돌아가는 액수를 따져 봤거든요. 우리 농업경영체 100만 호 하면 기본 직불로 드리는 거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종의 농업계의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생산 중립적인 기본 직

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전종덕 위원 직불금 5조도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시잖아요. 엇그제 당정협의회 때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직불금 5조는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종덕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처음 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 직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전종덕 위원 일단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장관님은 정말 자고자대하신 것 같은데 90점 평가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0점 평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정부 들어서 한 것들이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중의 하나가…… 기본 직불을 이렇게 한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다 한 일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런 생각으로는 농정이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농정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값 하락과 한우값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현안, 문제입니다. 쌀값, 시장격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5만t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t은 자체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10만t은 농협을 통해서 판매 촉진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 10만t의 판매 촉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이행해야 될 농협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농협 관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 ‘일반 농가가 갖고 있는 재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나 본 농민들은 농협이 받아 주지 않는 재고가 약 5만t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쌀값을 하락을 좀 막으려면 5만t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 20만t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20만t 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고보다 좀 더 재고 격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농협이 10만t을 어떻게 재고 소진을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말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농업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

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 특히 농림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1분만 더 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값뿐만 아니라 지금 한우 대책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우값 떨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한우법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우리 한우 농가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12월에 도래하는 사료 안정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지금 원금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책을 농민들께서 요구하는데 이에 관련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종덕 위원 연장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다음에 한우법 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법에 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한우 암소, 한우값도 쌀값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가격을 막으려면 격리가 필요하고 2만 두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격리를 한다는 게 제가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아니, 농민들께서 2만 두 정도 긴급 격리를 해 줘야 떨어지는 한우값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부가 사 달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종덕 위원 현장의 농민들의, 특히 한우 농가 이야기…… 만나 보셨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전종덕 위원 그래서 한우 농가가 지금 긴급하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데 원금 상환……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방송에는 안 나갑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금 상환 기한 연장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자 감면까지. 그리고 경영안정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만 두 긴급 격리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다.

이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쌀값, 한우값은 저도 2차 질의 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 물가 중심의 수입 농정이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가 몇 년 축적이 되면 우리 농업의 최소한의 생산 기반이 상당히 위협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 농정을 빨리 전환해 주실 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농민과 농업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농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1년 대비 23년 기준을 보면요 농산물이 23%가 증가했고요, 곡류가 26%, 과실이 8%, 채소류가 28%, 두류가 34%가 증가했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것을 한국 돈으로 전환을 하면 21년 대비 23년에 농산물 수입 총액이 3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 총액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대비 한 7조가 늘었고요, 축산물은 3조가 늘었습니다.

사실 23년에 우리나라 GDP, 국내 농업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29조 뿐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0조 아닌가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48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입 물량이 48조, 49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수입 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농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기재부 재정운용계획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생산량의 자립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생산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수입해 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농가와 농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당관세를 어떻게 했느냐? 아까 봐 주시면 22년 6월에 돼지고기 5만t이 왔지요. 또 22년 7월에 소고기 10만t이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소값 하락의 트리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년 8월에 양파 9만t 또 23년 7월에 9만t……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24년 5월에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무 등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할당관세 제도를 이용해서 농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수입 물량으로 다 때려 막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20년에 할당관세 품목이 21개였습니다. 그러나 24년 현재 할당관세 품목이 50개로 확대됐습니다. 물량도 32%가 증가가 됐습니다.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물량이 단기적으로 끝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과 농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양파 같은 경우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도 변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5년 주기로, 5년 계획 단위였는데 1년 단위로 주기를 줄여 버렸어요. 그리고 기준가격은 양파를 하락시켰습니다. 주의 단계부터 수입 물량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경계·심각 단계에 가면 수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3년 10월에 1048원입니다. 그런데 1018원으로 낮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파 농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기준가격을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또 무시했어요.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기존 가이드라인은 양파 가격이 심각 단계, 1358원에 올랐을 때 수입 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23년 6월, 7월에 TRQ 9만t 도입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기존의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이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파 농가들이? 우리 모든 농가들이 그렇게 됩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aT에서 과일을 직수입해 왔던 것을 지금 대형마트가, 수입업체로 등록한 대형마트가 있고 수입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마트가 있는데 그 수입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마트들한테도 수입을 직접 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박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나나, 망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오면서 자몽, 아보카도, 두리안, 키위, 체리 뭐 이런 거 다 들어오면서 우리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서 도시 소비자들은 소매가격이 안정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시장가격하고 수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이중 시장가격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 보세요. 도매가격이 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 하락돼 왔지요? 그러나 소매가격은 20% 이상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생산량 늘어났고 수입량 늘어났는데 도매가격은 하락했는데 소매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수입업체들의 이익만 배부르게 하고 있고 실제 국민과 농업인들한테 이득인지를 수입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최근 3년간 수입업체들 특수를 누렸을 것 같아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수입업체의 명단, 대표자 현황, 수입 품목 가격 이런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농식품부가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기업의 비밀 유지니까 안 주겠다 해서 그때 열람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관님, 이거 관리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거 잘못된 보고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분 주세요.

10조의2에 보면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농식품부가 하게 돼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제출해 주세요. 왜 수입업자를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업체명과 현황을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해 주고. 이거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역본부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거고 다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20년 대비 23년 통계 자료입니다. 이거 콩, 배추, 마늘, 양파, 돼지, 닭인데 생산량과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이 20년 기준입니다. 아까 콩 같은 경우는 정부는 21년 기준 대비 계속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제 자료는 20년 대비로 하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과 농가에 미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향입니다, 여기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11년부터 23년까지 농업총생산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과연 농식품부가 수입 농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빨리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기후위기 대응 농업, 품목별 생산성 강화, 수입 및 국내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업체들 유통구조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원장 어기구** 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원택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재선되시니까 질의가 품격이 더 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장관님, 저도 이원택 간사님 질의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입품으로 인한 우리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 유통업, 수입·유통업체들만 배 불리는 거 아닌가,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 부분도 뭐……. 정당한 수입을 넘어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관님 농해수위 22대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예,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그동안의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걸 가지고 또 실제 우리 농업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신다, 이 부분이 농림부장관님을 비롯한 농림부 공무원들이 우리 농어업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10점 만점 받을 각오로 한다. 그런데 그 각오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10점 만점에, 100점에 90점 맞을 정도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장관님의 진의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뭐 이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편이 아니다, 농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책을 받으셨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최초로 나왔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석수가 우리 소수 야당, 당시의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회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18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률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이래 가지고 막 처리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처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님께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반대했던 이유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쌀은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줄어드는데……

○정희용 위원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겠다 이러면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전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정희용 위원 그 신호가 잘못 들어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쌀 공급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안 한 거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농민의 편이 아니고 우리 농업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쌀 공급과잉을 막고 거기에 들어갈, 거기에 돈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면 이 재원은 어디에 쓰여야 될 재원이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청년들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청년농을 육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세농, 미래농, 우리 어려운, 이제 고령화되는 고령농, 또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비용들이 이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매입 보관하는 데 들어갑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게 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 어떤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의 기초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식량 안보 차원의 말씀도 하셨는데, 쌀은 남고 밀·콩 부족하니까 남은 쌀을 쌀·콩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식량안보를 더 강화하는 길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래서 그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 거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시다마는 그 유럽의 우유 사례, 미국의 옥수수 사례 또 태국의 2011년도에 쌀 의무, 여기는 저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관세화……

○정희용 위원 소비 의무지요? 그거 뭐 유럽의 버터 뭐 이런 거 다 실패한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우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청년·여성·영세농·고령농을 위해서 도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21대 때 계속 2년 동안 했던 이 이야기를 22대 때 또 하는 것도 저도 참 좀 속이 상합니다,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은 장관님의 입장을 제가 좀 어떻게 설명도 드리고 제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중립 실천 목표를 30% 감축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그 약속은 국제적인 공신도가 있기 때문에 지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가 22.5%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장관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메탄 사료를 또 공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지금 며칠째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도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많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고 해서 뭐 농림부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이제 농작물의 피해도 있을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또 농민분들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빠른 복구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한 것이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도 잘 살펴봐 주시고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시간을 지켰다는 것……

○위원장 어기구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 저도 위원님들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질의해도 괜찮은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해 뒀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이하 우리 청장님, 또 그 외 간부님들 또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장관님 취임 일성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장관님 취임하실 때 농업인이 걱정거리 없이 농업에 집중하고 또 국민께서 먹거리 걱정 없는 농촌을 주거·일자리·사회서비스가 향상된 살기 좋은 공간으로 꼭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농촌을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시는데 해 보니까 어때요, 해 보니까? 많이 어렵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한걸음에 될 일은 아니고요. 요즘 방향을 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희망과 꿈이 넘치도록 그런 기틀을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여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정말 살 만한 곳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단편적으로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농가부채 평균, 가구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얼마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어기구 그렇습니다. 4158만 원, 2023년 통계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역대 최고로. 작년에 농가소득, 농업소득이지요,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 미만에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올해 한 1000만 원 넘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작년에 한 945만 원 정도였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작년도가 이제 5000만 원 돌파를 하면서요.

○위원장 어기구 농업소득만 따로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소득이 그중의 2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언저리에서 계속 한 30년째 머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농업·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소득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나요, 우리 그 곡물자급률? 누가……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어때요? 올해 22%라고 그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아까 뭐 19.6%도 말씀하시던데,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곡물자급률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요? 지금 그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이 10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31.3% 됐다가 계속 하락해서 지금 20% 언저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곡물자급률도 높

여야 되는 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럴려면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정책들이 필요한데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 그 농가소득을 보전하려면 특별히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 농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정말 농사짓는데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좀 짓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농안법,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에 내놓은 것 보니까 수입안정보험을 지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 수입안정보험 가지고 농산물 가격 안정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수급관리에 참여하는 자기책임 없이 그냥 가격 안정을 하게 되면 그 품목으로의 쏠림현상이 불가피해서 농산물의 전체적인 수급 불안정이 생긴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어기구 좋아요. 농민들께 자기책임도 일정 정도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요.

이게 보니까 보험료를 누가 내는 거예요, 보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재해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 중의 절반을 정부가 지금 냅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가 내고 또 지자체가 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본인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5%요? 그러니 자기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이게 보험 방식이에요, 보험 방식.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험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게 지금 10년째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5년부터 했습니다, 시범사업.

○위원장 어기구 시범사업일까요? 그러니까 뭐 한 9년, 10년쯤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내년 2025년도에는 15개 품목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러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이제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있고요. 평가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그리고 농업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범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안정을 100% 보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확실하지요?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하고 일단 농업·농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가격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농민값이라는 쌀값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어요. 현장도 가 봤더니 지금 현장에서 하는 말씀은 이제 곧 햃곡이 나오잖아요. 두 달 후면 또 새로운 햃곡이 나올텐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쌀값을 잡으려면 15만t 시장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쌀값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협도 대책이 없대요, 농협도. 그러면 결국 쌀값은 우리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민값이잖아요, 농민값.

그러니까 쌀값, 의무매입하면 쌀을 더 농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말씀도 주시는데, 사실 이 농지는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농지를, 논을 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유념하셔서…… 지금 당장 두 달 후면 쌀값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냥 탁상논쟁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2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 봤잖아요. 이 쌀 15만t 격리하는 데 돈이 한 200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2000억. 2000억 가지고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뭐 이걸 하면 돈이 들어가면 청년으로 갈 돈이, 예산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업·농촌 예산을 확 늘릴 필요가 있어요. 18조 가지고 그 안에서 실링을 정해 놓고 여기 뺐다, 여기 갖다 뺐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직불제 때문에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스위스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였어요, 10%. 10%를 가지고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알프스 농업·농촌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년농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이 광활한 농지에 예산이 그냥 너무 적다 보니까…… 한 60조 정도는 농업·농촌에 하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그 반이라도, 30조라도. 이렇게 우리 실링을 늘려야 한우값도 잡고 쌀값도 잡고 청년농도 키우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나누려니까 힘든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모두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22대 국회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올 수 있는……

○**김선교 위원** 위원장이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 7분이면 7분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7분 이상씩 써도 되는 건가?

○**위원장 어기구** 이런 위원회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값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김선교 위원님이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고 또 혼내네요.

여기서 제가 말 막고요.

1차 질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2차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쌀값, 한우값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장관님께서 대책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농가들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 넘어간 뒤에 심폐소생술을 해 봐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시기 검토를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꼭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한우법을 발의하는 그 취지를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소값 파동 억제 등 지속가능 한 우산업 유지를 위해서 발의된 법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장관님께서 거부권에 대한 용어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의요구권으로 표현을 해 보면 어찌 됐든 재의요구권을 행사 했는데 이제는 한우법 취지를 맞춰서, 반영해서 축산법을 개정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축산법 개정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거의 안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한우법의 취지 그리고 우리 한우농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축산법에 다 담았습니다. 타 축종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타 축종하고 같이 다 이렇게 하려면, 의견 수렴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하세월일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왕이면 그래도 축산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한우·한돈이 있는데, 여러 축산농가들이 원하고 한우법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면 한우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축산법을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게 시간 벌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거의 축산법은……

○문금주 위원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저도 내용을 받아 보니까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 조항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우 등 가축에 대해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을 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인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에서인가 발생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차단울타리만 세우고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광역울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가 주변에 다시 2차 차단울타리도 하고 그다음에 차단 방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백신 개발 예산이 1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1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좀 의문스럽고. 보니까 울타리 설치하는 1338억 원이나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울타리만 설치해서 대비를 하겠느냐……

지금 울타리 설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만이라 해도 다행인데 왜 굳이 여성·남성 나누십니까? 남성농업인도 많이 안 다칩니까? 남성농업인은 병에 안 걸리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특수건강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금주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문금주 위원 남성도 좀 포함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예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R&D 예산 삭감 비율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30.4%, 농촌진흥청은 19.5%, 산림청은 20.2%가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R&D 예산을 삭감했냐고 물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고 농촌진흥청은 건전재정이다, 산림청은 규모하고 단가 조정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에 대해서는 몇 조 단위로 쓰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농림부나 농진청이나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농업과 기술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 이게 줬다가 또 안 주고 이래 가지고는……

1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학자 출신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R&D 예산은 꾸준히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예산에는 그 전에 삭감됐던 것 그 이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진짜 농업 미래, 청년들 또 연구 학도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기본적으로 농림부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야 뒷받침을 해 드리더라도 해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올해 농업진흥지역, 특히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걸로는 전국에 2만 100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ha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법이요?

○**김선교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3ha 미만을 한 5ha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자체장이 철저히 조사하는 데는 좀 팬찮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왜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는 진흥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이런 걸 모르고 농사만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것은 저뿐 아니고 농촌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다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농민 경쟁력 강화는 현장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아주 철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장관님, 농축산업 현장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다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한 달에 한 17, 18회 정도 다닙니다. 주말도 다니기 때문이에요.

○**김선교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가십니까, 낮에 시간 일정 정해 농

고 다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은 대중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래서 다녀오시면 정책에 좀 도움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나 차관이나 국장들이 다녀온 현장에서 받은 건의사항 등을 다 정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게시를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 같은 것 이런 부분 을…… 한번 현장에 가 보면 연구회나 작목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리나라에 혹시나 연구회나 작목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알기로 연구회가 309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도 17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간담회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이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객토 또 비닐하우스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특색을 살려 가지고 하다 보면 그분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게 받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양평 부추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한번 가 보시면 2022년도에 150 농가가 187억을 했고 150 농가가 2023 년도에 180억을 했고 또 양평 수박 같은 데는 이모작으로 하는데 양평 수박을 하고 그러면 소득이 한 5000만 원 가깝게 되고요. 그다음에 멜론이나 이런 걸 또 후작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벼농사를 이제 잘 안 짓고 그런 걸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정말 피부에 와닿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농가소득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 아침 일찍, 지금 한창 양평 수박 같은 것은 수확을 하고 양평 부추도 한창 수확을 하거든요. 현장 다녀가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좀 해 가지고 서로가 공유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님, 저도 우리의 농업정책이 90점을 맞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부분 쌀, 한우 중심의 수급 불안 중심의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저는 농업 경영비 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스마트농업 전환 추진이 나와 있는데 전력 사용이 요구되는 이런

스마트농업,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이 농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영비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감당해야 될 경영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하우스농업, 시설농업이 발달해서 농업 경영비가 3년 사이에 무려 24%가량 폭등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부담이, 경영비가 어떤 분야에서 부담이 늘었는지 생각되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설비……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가 평균 비료비 지출액이 23%, 사료비 지출액은 15%, 광열비는 34%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목축업과 하우스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광열비는 60%가량, 사료비는 216% 폭등한 상태입니다. 광열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 부담인 경우 한전 자료에 따르면 5년 새 6579억이 증가했습니다. 1.7배나 불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농사를 지어야 손해만 보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뚜렷한 지원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개 사업에 32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난 5년 사이에 지출액이 6529억 원 수준인데 지원 규모는 320억 수준입니다. 좀 민망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농민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투입재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에는 WTO 규정상 이게 생산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서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해수부는 그런 WTO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56억 원의 예산을 도입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글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는 아마 지금 여기 자료 있으신 것처럼 비료, 사료, 유류비 등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4년,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발안까지 추진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가와 지자체가 경영 위기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출하신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에 마련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에 보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약간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

○문대림 위원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

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아까 삼겹살 보도와 관련돼서 반박자료 내신 게 있다는데 자료 낸 것 있으면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우선 농축산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나 공사도 최소한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실에는 보내 주는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아무 부서도 안 하시지요? 혹시나 알까 봐 숨기기에 급급하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를 막는 것 같습니다.

무기질비료하고 비료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년에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가격 인상분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분담해 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22년에 1800억 원, 작년에 1000억 원에 이어서 금년도 22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정부안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다 국회에서 꼭 이게 쪽지예산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맨날 이럴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필요시에 저희가 하여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필요시에…… 이게 지원이 꼭 필요한…… 해년마다 하고 계시면서 정부 예산에 안 올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톨도, 내년 예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요구에도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영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내년 예산에 빠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태껏 빠졌던 걸 갑자기 넣은 이유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한도 외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주철현 위원 빠졌을 겁니다,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도 외 예산으로 들어가서……

○주철현 위원 빠졌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좀 넣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기질비료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지자체로 이양됐는데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1130억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6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장관님,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이것은 관

계부처랑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지자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세수 부족으로 난리인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100%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정책이 무기질비료는 토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끊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겠다고 지금 원대하게 시작한 건데 정작 하지 않겠다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2년 뒤가 되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못 하게 되는데 이걸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환원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은 하여튼 관계부처,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래서 농림부의, 특히 장관님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돼서 오는 게 맞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제가 보기에선 지자체 이양사업을 다시 환원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수행할,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 되니까 작년 함평에서 발생한 수리시설감시원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작년 사망사건은…… 이게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도 무조건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규정을 고쳤더라고요, 조금. 알고 계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그 당시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었던 건 아닌데 좀 불분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시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판단의 주체가 수감원 본인이에요. 본인들이 일선에서 농사짓고 이런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그래서 활동지침, 운영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그야말로 예찰에만, 예찰 활동만 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수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사 직원이 장비를 들고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주철현 위원** 최첨단 AI 시대인데 이렇게 사람에만 의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되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또 사고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안전 위주로 하게 하면 업무를 또 안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CTV나 감지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아까 한우법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바빠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축산법을 개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살펴보니 시스템 구축 및 기본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가는 그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근거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안에는 저희가 한우 농가 의견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보여 드리고 같이 논의해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먼저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우 농가들하고는 여러 차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

○박덕흠 위원 담당 국장은 어떤 분이신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국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김정욱 예, 축산국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한우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김정욱 한우협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재의 요구한 후에 저희들이 안 마련해서 한우협회 또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하고 긴밀하게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협의한 마지막 날짜가 언제쯤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김정욱 지지난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협의가 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 방에.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관 김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이제 먼젓번 장관님께서 했던 가루쌀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올해도 가루쌀 신청을 받아서 136개 단지 중심으로 재배를, 모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올해 목표가 1만ha인데요. 그 목표 가가 이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제 가루쌀이 그때는 획기적으로 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1만ha 정도가, 지금 그것도 좀 완전히 안 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전락작물직불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게 쌀 수급하는 데 큰 영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 쌀 수급하는 데, 아까 105%라고 그러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쌀자금률.

○박덕흠 위원 예, 쌀 생산량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러려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농지도 획기적으로 풀어 가지고 쌀 수급을 좀 조절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3ha 미만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자투리 농지.

○박덕흠 위원 자투리 농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3ha 미만 했을 때 효과 분석은 해 봤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국에 지금 보면 3ha 미만 농업진흥지역이 2만 1000ha가 됩니다, 전국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농지를 보통 150만ha, 그중의 절반 정도가 진흥지역인데요. 70만ha 중의 2만 1000ha니까 상당한 부분의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해제

가 되는 셈입니다.

○박덕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박덕흠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땅을 매입하고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공임대라든지 규모화를……

○박덕흠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공임대 용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뿐이 안 하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박덕흠 위원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현황 있지요? 5년 치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아주 적합한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 장관님 인사말씀 하시는 데 5페이지에도 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보고말씀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축산 분야의 이 프로그램을 봤더니만 이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지금 잘 지급되고 있는지가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이 축산 관련된 예산이 49억인데 현재 이게 잘 지급이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올해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위원님. 저메탄사료 소재 개발 지원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농가한테 탄소중립직불금……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제 질문을 5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게 보니까 49억 중에 운영비·홍보비가 3억이 나갔고, 이게 직불금인 거지요? 선택형 공익직불제인데 46억이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 저메탄사료 급이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메탄저감제 인증을 받은 물질이 없어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 상황을 봤더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증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메탄저감제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게 올해 안으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찾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 진흥청의 소속기관이긴 한데요.

○**송옥주 위원** 아, 그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또 보니까 인증업무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하고 실험기관은 순천대에서 했다가 서울대가 하나가 추가된 부분인데 인증이라든지 실험기관이 참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탄 저감을 위해서는 가격 부담이 높은 저감제가 첨가돼야 되는데 사료 값이 킬로당 30원까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려는 직불금은 킬로당 10원이에요. 이 직불금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거지요, 선택형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림부 정책으로 있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의 지원 조건이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돼야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그거에 대해 장관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축산 분야의 저탄소를 위한 또 탄소 저감을 위한 그런 사항은 중요하고요. 메탄사료 개발 문제, 거기에 따른 인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속도가 좀 많이 나와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

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도 이거 속도감 있게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5개 항목 중에 이게 네 번째 항목이고 사실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농가한테 인센티브가 될 만하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부분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건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옥주 위원** 금리, 상환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마저 좀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사업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아,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1대 때는 업무보고나 그럴 때 논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림부라든지 농진청이나 산림청이나 어느 업무보고 자료나 인사말에도 농업위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 농업위성이 2025년에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몇몇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농업위성이 제대로만 활성화되고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농업데이터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도 감축시키고 또 산불이나 재해에 대한 예방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두 부처에서, 산림청장님 또 농촌진흥청장님 답변 주시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농림부에서 좀 틀어쥐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기상청에서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위성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틀어쥐고 해서 그 부분들이 잘해서 오보청이라는 게 지금 많이 만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장관님도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진청장님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주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저희들이 농림위성 개발을 하는 과정에, 2012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수요 제출을 그때 했었고요. 그 이후에 예타라든지 우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19년 4월 달에 우주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 사업을 19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농진청,

산림청 각각 예산 분담을 해서 한 1160억 정도의 예산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컨대 25년에는 발사하고 초기 운영이 가능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26년부터는 그 데이터를 국내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간도 농식품부와 많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생산 현장에서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산림청장님도 혹시……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의 같고요.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청에서는 국가 산림위성정보센터를 준공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입주할 계획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위성센터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성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36종 정도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성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산림재해, 산불, 산사태 재해 분석하는 기술 또 산림 생태계 건강성 판단하는 기술 또 산림자원의 변화량 판단하는 기술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께서 답변 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농식품부가 총괄해서 농진청, 산림청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총괄이 아니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산림청장님, 우리 숲이 아주 소중한데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온도도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탄소도 배출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데, 유아숲체험은 들어 보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게 대통령께서 4월 5일 식목일 때 150개 더 만든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유아숲체험을 보니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림청장 임상섭 국가에서 직접 조사하는 유아숲체험원도 있고요.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 가지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하고 차별이 좀 심

합니다. 이 숲교육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특히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지방에 매우 높아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구가 소멸되고 유출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해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야 되겠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150개를 골고루 전국에 균형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 종합계획을 짜서 다음 상임위 때까지 좀 가져오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소나 돼지 그다음에 닭, 오리, 계란 유통 과정을 봤거든요. 보니까 유통 마진이 제일 높은 게 소입니다, 소.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유통 마진이 소 같은 경우는 22%, 23%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2.7% 그다음에 닭은 10.6 그다음에 오리 같은 경우는 5.4 그다음에 계란 있잖아요, 달걀. 계란은 0.3%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통 마진이 이렇게 소가 높다는 것은 소 농가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유통하는 업자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 이 말이지요,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유통 마진 구조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다음 상임위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21대 때 우리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이제 3년 유예를 했는데 그때 규정례에 전환, 폐업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 상태 또 시행령 작업, 일련의 내용들

을 정리해서 여기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장관님의 농망법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적극적인 사과 의사나 반성적인 고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농망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관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단 접어 두더라도 저는 내용적으로 농식품부가 장관 입을 통해서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보면 농안법이 개정되면 보관·매입 비용에만 연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3조 원 내역을 내 보라 그랬더니 지금 매입비·보관비 1조 6000억, 추가적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격리 타작물 지원비용 1조 4000억 해서 3조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여기에서 제시한……

○**윤준병 위원** 그렇다면 실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비용을 추계하면 1조 4000억이잖아요. 1조 4000억을 얹어서 3조 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수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현재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1조 6000억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용에다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면서 1조 4000억짜리를 3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농식품부가 포장한 내용이고요.

또 농산물 사전 생산조정을 하면 이 내용이 실제 의무매입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무매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3조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기망한 것, 또 시장격리 기준이 21대 때 발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하고 22대에 발의된 양곡관리법하고 내용적으로 현격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21대 때 제시된 조건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왜곡한 점, 또 설사 21대 때 한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현안질의를 통해서 엉터리 보고서임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제를 가지고 엉터리 조건이 제시된 그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런 내용이 장관이 농식품부의 관료들에 휘둘러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제대로 한번 분석하시고 사실이 다르면 차후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발표했어요. 이것 실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농식품부가 전면 도입을 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작년부터도 용역을 했고요.

○윤준병 위원 내용은요, 작년에도 정황근 장관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면 도입 얘기를 일언반구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식품부는 채소생산안정제 이것만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겠다고 금년 초까지도 했어요. 송 장관이 그 발표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채소가격안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 농산물 가격안정제 거부권 행사 분위기 잡으려고 일부러 또 예전처럼 3조 원이 드니 농망법이니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장관이 그렇게 맹신하는 KREI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내용이 무수히 문제가 많다는 게 들어 있어요.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의 애로 뭐 이래서 앞으로 확대되기도 어렵다 이게 KREI의 보고입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런 문제에 염려가 되어서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고요.

○윤준병 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정리됐다는 내용을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왜 보고도 않고 발표를 덜렁 해 놓고 문제 제기하니까 보고하겠다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입안정보험의……

○윤준병 위원 제도를 정부가 하려면 ‘그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치유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추진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의 큰 틀은, 윤곽은 말씀을 드렸고……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하시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하고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하려면 기본방향은 기본안전망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리고 선택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보험제도나 다른 제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도적인 운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수입안정보험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을 수입안정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나머지 제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잣끈도 매지 말라, 무슨 얘기인가요, 장관님? 의심될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1조 6000억은 기사용금액 아닌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올해 기준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양곡법, 농식품부에 의해서 추계된 금액에 의거한다면 1조 4000억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소한.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3조로 둔갑이 됐어요. 1조 400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학자 출신 장관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왜 3조라고 나왔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신문 기사들이, 기자들이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으신 거고……

○이병진 위원 거기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는 떳떳하지 못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정정보도 요구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정정보도 할 일은 아닙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보면 1조 4000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가 들어가는 거지 1조 6000억은 기대출금액이잖아요. 대출금액이 아니고 기사용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안에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아라, 말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실로 다가가고 농민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중국에서 식량안보 보장법 시행한 사실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모릅니다.

○이병진 위원 몰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은 반도체 위기 이후에 먹거리에 치중하면서 2012년 식량법 초안을 만든 이후에 농지총량 보전과 질적 보호 의무까지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만큼은 스스로 손에 쥐겠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올해는 미국이, 2024년도 미국이 농업·식품·국가안보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가안보법이라는, 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식량과 식품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안에 그것을 집어넣을 정도면 그 인식의 정도가 얼마나 엄중하나라는 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식량안보가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 25년 만에 개정을 해 가지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의 인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농업은 무슨 산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안보산업입니다.

○이병진 위원 기간산업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리고 미래성장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병진 위원 국방산업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입니다.

○이병진 위원 먹거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못 삽니다.

○이병진 위원 국방은 남에게 맡겨야 됩니까, 스스로 지켜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아까 곡물자급률 얘기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9.5%예요, 3년간 추계가. 20%가 무너졌어요. 장관은 22.3%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곡물자급률.

○이병진 위원 예, 곡물자급률은 19.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는 국토방위처럼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의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정책의 근간은 식량 자급에 매진해야 되겠다…… 쿵, 밀 말씀 많이 하셨는데 3%, 1%밖에 안 되는 것 어떻게 자급 달성할 거예요? 그 계획 있습니까? 계획 좀 내 주세요, 우리 의원실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참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기후위기 아시지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계는 말이지요, 기후재난보다 윤석열 정부 정책이 더 큰 재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 포 밀리언(one for million)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원 포 밀리언? 한 사람이 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안 들어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만큼 우수한 인재,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 봤다고 하니깐 말문이 막혀 버리는데, 기초적인 상식인데 그것을 안 들어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업은 사실 농업진흥청이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계속 제고할 수 있는 포텐셜 파워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농업 R&D 예산을 보면 22.2%, 2717억 원 줄었어요. 그래서 1조 739억 원이 책정됐어요. 국가 전체 R&D 예산 감소율이 14.7%인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줄었지요, 농업 분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좀 내실화했고요, 위원님.

○이병진 위원 내실화한 겁니까? 일률적 삭감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률적 삭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피맺히는 항거 해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유사·중복사업도……

○이병진 위원 국방산업이고 미래산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챌린지 해 봤어요, 우리 관계자들? 참 이 예산이 심각합니다. 연구 분야, 대학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도 넘게 감액이 돼 버렸어요. 특히 연구원 활동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대학원생들과 현장 연구인력이 아주 그냥 이탈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 방법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R&D 예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올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최대한’은 너무나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몇 % 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최대한’은 나도 항상 쓸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1분 다 더 쓰신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예, 다 썼습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수확기 양곡가격을 유지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농업이 망하는 현실이 양곡법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24년도 수확기 양곡값도 하여튼 농민들의 기대대로 또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만 원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농지법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4년도에 농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후로는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LH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철퇴를 내려치듯이 그냥 강하게 옥죄는 규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피해는 사실은 투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우리 일반 선량한 농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농지법 개정을 할 때 저도 그 소위에서 농지거래시장의 위축이라든지 또 농업인의 제한된 재산권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지만 그때 당시에 다수당이던 야당의 주도로—그 당시에는 여당이지요—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농업진흥지역에서만 주말·체험농장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농지은행 등을 활용한 위탁이나 임대 같은 것이 자경 3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면 그런 제한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조목조목 정말 우리 검토를 해 보고 농민이 아니라 투기세력을 잡는 농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농지 가격하고……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래도 감소하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매일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농업의 채산성도 악화되고 농업의 미래 상황 등이 시장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농업 현장에서…… 아까 농업 경영비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된다, 예산 범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강화해야 된다고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지금 우리 농업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지속가능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과연 차등 없이 지급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5000은 저쪽의 5000과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3만 8000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 분야에 들어와 있고 그중에 E-9 비자 같은 고용허가제 또 계절근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임금 자체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등등 해서 똑같이 주게 돼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의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렇게 그 내용을 다 적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목소리가 농림부 쪽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또 농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이만희 위원** 농지은행 운영하시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이만희 위원** 농지은행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지은행은 올해 1조 8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만희 위원** 1조 8000억 가까이 됩니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농지 매입이라든지 축적해서 임대도 하고, 그렇지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제가……

○**이만희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농지은행의 역할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제가 해외 다녀 보면 저희 농지은행제도에 대해서 해외 농정 당국자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부러워합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농지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농지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세 번째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광범위하게 드리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3조 1000억, 문재인 정권보다도 약 한 30% 직불금을 늘렸습니다. 지금 3조 1000억이잖아요. 앞으로 26년도까지 5조 원까지 넓히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예산들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직불금이 경작자에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소유자에게 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리바이벌해 보면 조례특례제한법, 그렇지요? 이런 쪽에 있는 소유자들이 자경농 8년 거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이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보입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농지 활용도 재고하는 것도 그렇고요. 공익직불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법 관련한 민원들이 우리 당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정부가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장관님 답변하신 내용 중의 이것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폐지하겠다고 하시는 것. 3ha 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ha 이하.

○임미애 위원 사실 자투리 농지라고 얘기하는데 3ha면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라는 용어가 이때 쓰여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해서 해제 되는 농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2만 2000ha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만 1000ha.

○임미애 위원 2만 1000ha.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 2022년 12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의 적정 면적을 150만ha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23년 전체 경지 면적이 151만 2000ha예요. 그러면 결국은 24년도에 그거 무너지겠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이 농지 면적이요?

○임미애 위원 150만ha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지금…… 이게 위원님, 진흥지역 농지가 그런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진흥지역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진흥지역만 농지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게 아니고요. 진흥지역인 것을 해

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미애 위원 여기에서 농지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다 농지입니다. 2만 1000ha가 다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니 이것이…… 말하자면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일 수 있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어쨌든 간 그것을 해제하면 그것이 다르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개발은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농업과 관련되는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할 때는 전제, 딱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만 해제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농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것은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지자체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특히 청년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청년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의 청년농 주요 지원사업이 지금 정착하는 사업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제가 18년부터 죽 뽑아 보니까요 전체 한 3개년 동안 4800명 정도가 들어왔고 약 9% 되는 437명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왜 농촌을 떠나게 됐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시는 것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어요?

청년농 육성 관련한 자금인데요. 하나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 있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이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5억 원 이내인데 이게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취급건수 1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은 이렇게 치면 1인당 5억을 한도로 했지만 실제로는 1억 4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당 30억 원인데요. 이게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면 18년도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 정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억 원을 모두 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자 계산을 해 보면 고정…… 그러니까 시설비는 1%니까 제가 그냥 모두 다 1%를 이자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한 달 이자가 한 25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원금이 125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합치면 150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됩니다. 이제, 작년부터.

그런데 1500만 원을 매달 갚는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장관님은 딸기농사 이 시설에서 지어서 1년에 몇 달 농사짓는지 아십니까, 수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이요?

○임미애 위원 3개월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개월.

○임미애 위원 3개월을 하고 나머지 9개월은……

1분만 더 주시지요.

9개월은 다음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3개월 소득을 가지고 1년 동안 1500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저는 이 비용을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대출금액이 한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의 담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우스 연동형이나 이런 것이 담보로 들어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실로…… 골재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만이 담보가 잡히니까 실제로 청년농업인들이 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 대출을 받으려면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하우스 농업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장관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유리온실을 하는 이유는 채광 문제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채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시설의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담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께 오전에 여쭙던 거…… 아니, 아까 여쭙던 거 다시 여쭙게요.

중앙회에서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상조하고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법인은 총투자가 520억인데 회수된 금액이 29억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지금 최소 조립 면적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2개 다 지금 법인 청산하기로 되어 있지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이양수 위원 그러면 총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2개 합치면?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지금 인도네시아는 26년 말까지 출구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6년, 그러니까 27년도 3월 정도 예상했을 때 저희들이 한 166억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현재 한 50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 그래서 향후에 베트남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 계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림 면적을 확보해서 조림 사업을 추진하면 수익성이 나는데요. 그 조림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조 자회사는 22년도부터 손익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조는 23년까지 적자를 하고 지금 작년, 그러니까 22년까지 적자고 23년에 좋아진 것이지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700만 원 났었고요. 23년도에 6억 1900만 원.

○이양수 위원 20년부터 올 3월까지 지금 자본금 대비 손실금액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한 35억 정도.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 지금까지 손실비용이 35억이지요? 손실이 35억, 손실 비율이 200%.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지금 현재 상조 같은 경우에는 24년 3월 현재……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30억입니다. 자본……

○이양수 위원 그리고 저번 때에서도 SJ씨엔티 그것도 자본금 대비 25% 손실 기록하면서 청산했잖습니까.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이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만드는 자회사들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손해만 보고 계속 청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좀 더 신중하셔야 되고 좀 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해외 조림은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 위원 예.

그리고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이양수 위원 사과, 재작년에 56만t 생산했는데 작년에 39만t 정도, 한 30% 정도 줄어 들었지요. 이유는 확인하셨나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냉해 문제 그리고 태풍 영향도 있었고요.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탄저병 이슈도 있었고 이런 과정 등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올해에도 되풀이됩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현재까지 냉해 피해는 없었던 걸로 돼서 작년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있는 태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양수 위원 자연재해는 그렇다 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 내재해성 품종 개발도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재배지 이것도 사실은 경북에서 강원도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새로운 지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농진청장님한테 여쭙 봐야 되나……

사과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은 데는 지금 보험이 되고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재해보험은 농식품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농식품부에서 재해보험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당한가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부가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가루쌀, 분질미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진행 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작년도에는 2000ha 했고요, 올해는 1만ha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한 가루쌀은 정부가 전량 매입해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데 식품기업들에서 만들어 낸 지금 가루쌀 관련된 제품들 이것이 100여 종이 넘는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푸드테크하고 결합해서 마시는 쌀음료 이것도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우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음료까지 나오는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분질미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임호선 위원입니다.

한우법 재발의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거부권 관련 브리핑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축종 간 형평성이라는 게 제일 크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가축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미국 또 EU 소고기 관세 철폐되지요? 27년도에 호주, 28년도에 뉴질랜드 관세 철폐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수입산이 62%, 국내 한우가 10년 전 보다 45에서 33% 이렇게 지금 시장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한우산업이 지금 뿌리째 뽑힐 위기다, 축종별로 형평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 한우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이야말로 특별법이 되더라도 한우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얼마 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발표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안위에서 4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뭐 집행률이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지방이. 그런데 이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돼 가지고 발표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주민 주도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정책 틀로 전환이다 이런 기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됐더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2개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정책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본 모델이라든지 사례 또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당장 아마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자료 받아 보시면 그 집행률이 거의 제로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성격도 거의 유사합니다. 집행을 못 해요.

그리고 매칭도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 농림부 방침 보니까 ‘타 부처 사업을 중합 연계한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세수 핑크 때문에 지방교부액 줄어들지요. 지방세수 자체가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매칭 비용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읍면 일률 지원’에서 ‘중심지 읍면 거점 육성’이라는, 아주 참 내용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저같이, 시골을 이렇게 선거구로

두고 있는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사실은 재구조화가 다 필요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내부 경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리고 예산 규모를 보면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8340억 규모 정도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예산이요?

○임호선 위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기재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가 이 농촌공간계획 관련해서 시군 역량 부족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교육과 설명회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시군에 지금 뭐를 만드냐고 하나면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아예 농촌공간 지원기관을, 기존에 우리 국책연구기관하고 공사 이렇게 다 해서 지원기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게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안 되도록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농촌공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자체가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사실 여러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잘한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저한테도 막 전화가 오거든요, 좀 잘되는 데 있으면 알려 달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좋은 사례들을 한번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기면 그런 부작용이 나는 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가축 의료 공백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수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아마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수의직 공무원님들…… 전북 정읍시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가축방역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간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여기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수의직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의 67.6%, 23년도 기준 1214명이 정원인데 821명이 부족하고요. 이거를 시도별로 보니까 전남 같은 데가 제일 심각해요.

수의직 정원 141명 중에 66명, 결원이 무려 75명,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참 고민인데요.

○임호선 위원 이것 어떻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계속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사실 처우도 좋지 않아

요. 그러니까 계속 미달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하고 좀 협업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질병 진단하고 이런 단계에는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그런데 관련 수당 10만 원 올렸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임호선 위원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더 노력하고……

○임호선 위원 장관님,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한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서삼석 위원 60년 이상 R&D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논문의 질적 수준이 더 떨어진다는 평가인데 분발해야 되겠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믿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국정감사에서 또 물어봅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

○서삼석 위원 대답 안 하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산림청장!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임업직불제를 다양한 조건을 마련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우리 임업직불제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수산 분야, 여섯 가지 정도 선택적직불제로 돼 있는데……

○서삼석 위원 그래서……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저희 안 그래도 금년 2월 달부터 농경연에서 용역을 해서 선택형직불제의 적정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됩니다. 관찰시켜야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서삼석 위원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 힘드시지요?

힘드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서삼석 위원 대답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서삼석 위원 안 힘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힘듭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농민들이 더 힘들어요.

시골에 가면은 노인분들 유모차 밀고 다니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농협하나로마트예요, 마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거기 가서 물건을 사야 될 형편에 있는 양반들이 거기서 물건을 못 사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읍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현실을 상상만 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말이 안 됩니다.

○서삼석 위원 이걸 고쳐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이 정부는 왜 그걸 안 고치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준비를 안 해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까 물어보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농업금융정책과장 오늘 출석했어요? 밖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정국장이 왔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요. 내가 안 했다고 하니까 장관은 ‘지난주에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향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삼석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사랑상품권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건 협의도 뵈도 아니예요. 7월 4일 날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장관도 그건 실정을 잘 알아야 돼요. 7월 5일 날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이 행안부 담당 과장하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농림부 과장이 세기는 세구먼. 그렇게 해서라도 관찰만 되면 좋겠는데 하세월이야.

그래서 더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장관이 그런 농촌 실정을 다 인식하고 인지하셨으니까 직접 나서서 해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약속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다 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삼석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만 해 주셨습니다.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아까 인사말씀 중에 하반기 주요 현안인 산사태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의 가장 위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지 내 인위적 형질이 변경된 지역이……

○서천호 위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태양광 설비 허가가 난 산지라고 보면 맞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뭐 그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난 정부 5년 동안 산지 태양광 설비 허가로 약 5184ha, 여의도 면적의 한 18배 산지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중에서 총 264만 5000그루의 나무가 훼손이 됐고 5년간 벌채한 면적만 62만ha입니다. 5년간 산지 태양광 허가가 약 17년·18년·19년, 3년간에 약 1만 건 정도가 허가가 됐고요.

문제가 산지 태양광 시설 중에 573개소가 산사태 고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실제로 보면 지난 정부에서 허가된 산지 태양광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태양광 목적 산지 내에서 3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산지를 훼손하고 산사태까지 발생시키며 산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지만 이 예산도 약 4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전체 발전량의 한 3.8%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으로 내세웠던 태양광발전소의 성과는 보시다시피 저조합니다. 오히려 탄소를 흡수해 주는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산지 태양광을 위해서 훼손된, 파괴된 산지를 어떻게 복구할 거냐? 또 높아진 산사태 발생 우려에 대해서 어떤 복구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촌진흥청장님, 농산물 종자 관련해서 연간 한 100억 이상 로열티를 외

국에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과거에 로열티가 있었는데요. 요즘 최근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줄어드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최근에는 한 80억 정도?

○**서천호 위원** 80 정도로 줄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서천호 위원** 청양고추라든지 금싸라기참외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종자 소유권이 외국에 있는 거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진흥청은 정부 부처 가운데 인력…… 연구인력, 연구예산이 정부 부처 중에서 아주 선두권에 있습니다. 맞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전체 직원 중에서 석박사 비율이 약 한 6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 예산도 총 1조 9340억 중에서 58%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연도가 1962년도인데 그간에 농촌진흥청의 소위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과거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서 큰 성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정말 특별히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또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을 올려 주는 종자기술 개발도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울러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과수화상병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농해수위 소관 10개 부처 기관들에서 약 1500억 원의 대북 지원 및 협력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478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부가 1000억에 7000만 원이 모자란 99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관련 대북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 공문 또 TF팀을 꾸렸는데 어떤 근거로 TF팀을 꾸렸는지, 또 일부에는 연구예산이 3억 또 9억씩 들어간 것도 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도 그 관련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여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11%를 산림 부분에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고 국외 산림에서 500만t을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곳이 베트남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산림중앙회 회장님께서서는 해외산림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산림청에서는 500만t을 국외 산림을 통해서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정책이 이렇게 엇갈립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건 해외조림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림청에서 말씀드린 2030 탄소흡수원 증진계획에서는……

○전종덕 **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REDD+라는 다른 종류의 사업입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다른지는 추가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산림으로 2700만t을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지금 수확기에 다 도달을 해서 기여도를 2030까지, 이게 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2030 탄소흡수원 계획에 따라서 산림경영 관련된 내용, 산림경영을 활성화해서 임목축적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목재 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 신규 조림하는 방법이 있고……

○전종덕 **위원** 그것 또한 2030까지 이것을 달성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추가로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님,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 나온 건데요.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농지로 투기를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우리 농민들은 수수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 개선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 운영계획, 운영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국감 전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군요?

지금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책 방향성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원래 그 임대수탁 수수료가 8%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5%로 내려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폐지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농민과 비농민을 차등화한다든지 또는 장기임대를 조금 더 감면을 한다든지 소규모는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전종덕 위원** 예, 그것 또한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아서요.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도 0.9%인데 농지임대 수수료로 5%까지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이중 삼중, 안 그래도 생산액의 25~35%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폐지하고 이에 대한 채원 조달 등 정부의 대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한우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 관련해서 원금 상환 연장,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아까 격리는 농림부가 2만 두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격리하라는 건데요.

생산을 조절하고…… 가격 안정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먼저 생산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수입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이겠지요.

특히 생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한우농민들의 고민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이 다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한우농가의 생산에 관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농민들 여론이 높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대기업의 한우 생산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농림부 차원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기업의 한우 생산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요? 우리 농민들은 생산 문제에서 굉장히 절박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한우의 이슈는 너무 지금 사육 두수가 많아서 지금 올해 도축 물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전종덕 위원** 사육 두수도 많은데 대기업이 아주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생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따로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아, 이따 3차 질문 때 해야 되겠구나.

근본적인 대책, 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식량자급률을 정하면서 우리 식량안보를 지켜 가듯이,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농업을 유지해 가듯이 한우에 대한 자급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30% 정도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그래서 한우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축산법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법에 한우 자급률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을 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담아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한 30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어기구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해야……

○전종덕 위원 하다가 말아 가지고……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마이크가 나오지를 않아요. 꺼져 가지고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전종덕 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사실……

PPT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쌀값, 한우값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실효성이 없으면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한우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걸 버텨 내야 할 것은 농민이고 농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와중에 유통 마진을 먹는 사람은 먹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문제인 정부 말기에 쌀값을 김현수 장관이 잡겠다 잡겠다 하면서, 사실 사후약방문 대책을 나오면서 0.7%인 3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저는 농민들한테 졌다고 봅니다. 그때 정권을 놓친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때 실효적인 정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 개인의 선의,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화하자라는 취지로 양곡관리법 의무화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쌀값의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우값의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버텨 내라, 한우농가들한테 버텨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농가들은 정리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15만t 중에, 농협이 갖고 있는 15만t 중에 정부가 5만t 했지요. 농협이 10만t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시장에다가 저가로 내놓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농협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곡이 9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9월, 10월에 들어오면 창고를 비워야 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월, 10월에.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부터 한우 사육 두수가 많이 늘어나서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 계속 해 왔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한우법

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14만 두를 단계적으로 암소를 줄인다? 그걸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들한테 버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료자금 조금 더 줄게, 유예 조금 더 해 줄게. 그걸로 한우농가들이 이겨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소 시장격리라고 하는 대책이 한우협회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걸 검토하십시오. 그것 검토하지 않으면 한우농가들 고스란히…… 2026년부터 사육 두수가 줄어든다니까 그때까지 한우농가들의 아픔은 농가들이 다 지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장관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문제인 정부의 교훈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지금 조언한다면 바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효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농가가 책임 있게 수급관리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이원택 위원 장관님, 그때 수급관리에 정부 제 기억에—저는 21대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관님 전이니까—수급관리를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자라고 했던 거고 한우산업법 통과할 때 그 법안에 뭐가 있냐 하면 사육 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겠다는 게 한우협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원택 위원 그래서 그때 선제적인 대응을 22년부터 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한우농가들이 여의도 앞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라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장관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장관님이 농업이 망하는 법이다, 농망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장관님 오기 전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까 3조냐, 1조 4000억이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농업이 망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곡관리법 1차는요 3%, 5% 의무를 부과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논 타작물 재배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적극 조치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 놓고 거부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아, 그러면 3%, 5% 기준 없애겠어, 그리고 기준가격으로 하고 이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해, 위원회에서 정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를 더 확대하고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냈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1차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민주당의 2차 양곡관리법을 공격한 겁니다.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1차는 틀렸든 그르든 KREI에서 영향분

석을 했어요. 2차는 영향분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농업을 망치는 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주장이다, 팩트가 틀렸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아까 제가 영향분석 했는가 자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장관님 연구자잖아요. 신중하셔야 하잖아요, 발언을, 공개적인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농업 폭망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농해수위 소위에 그 법안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논쟁을 합시다. 장관님께서 그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논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 폭망법은 팩트 오인으로부터 1차 팩트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

쌀값과 한우값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세요. 안 만들면 윤석열 정부로 농민의 원망이 다 갑니다. 나중에 책임질, 우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듯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효적인 대책의 출발은 수급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책임지고 그 수급관리에 참여를 할 때 그것이 또 가격의 저하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 말하자면 입식을 할 적에는 많이 입식을 하셨다가, 가격이 좋으니까 당장 눈 앞에 그런 것 때문에 입식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또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저는 이제 그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그 말씀 속에서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저희가 실효적인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과도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의, 뭐랄까요 진실성이랄까 이런 거는 좀 믿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부터 믿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원택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또 너무 많이 한다고 정희용 간사님께서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두 분 간사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는데요. 실효적인 대책, 중단기 정책 잘 마련해서 농업·농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우리 임상섭 산림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비 많이 오는데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하루 종일 계셔도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현재까지 보고된 산사태는 보은 지역이 한 군데, 과수원 근처에서 한 군데 난 게 있고 아직 가로수 피해 한 열일곱 그루 정도만 있고 아직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비상 상황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 청장님은 비상 대기하러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권재한 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 농림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해서 우리 농진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 같은데…… 여성 간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잘 못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 여성 간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신경 써 보셔야 될 것 같고.

각 광역단체별로 대표 작목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배기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화, 상품화, 수출화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생산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확기술 또 가공기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 또 농업기계의 고도화 이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장관님,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도에 쌀산업 발전 TF를 해 가지고 쌀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한 적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검토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 하고 끝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책으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정책에 따른, 말하자면 지금 의무매입제와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논의로 그쳤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검토한다는 회의자료가 아까 띄워졌던 건가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희용 위원 검토한 그거지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용 위원 시행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우려돼서 작동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쌀값 2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이 어떻게 약속한 거는 아닌데요.

○정희용 위원 약속이 아니라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 제가 기억할 때는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됐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희용 위원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던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작년 4월에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쌀값 관련해서 정부가 23년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저희 보도 자료에도 올려 놔습니다.

○정희용 위원 예,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확히 수확기 쌀값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거는 분명히 수확기 쌀값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쌀값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게 지켜졌던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쌀값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쌀값 하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한우협회에서 전국에서—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올라오셔서 집회를 하고 가시고 저도 나가 봤었는데 참 우리 한우농가 또 우리 농민들께서 그렇게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 오시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마음이 아픕니다.

○정희용 위원 아프고 그래서…… 지금 한우법이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해수위 하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까마는 그게 양곡관리법하고 중간에 끼워 들어가면서 제대로 여야 또 정부 간에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로 이송이 됐고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행사 안 하실 수가 없지요. 앞으로는 그러실 거고 그렇게 건의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부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안이 처리돼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우 수급 안정,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우법을 전향적으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축산법 안에서 별도의 어떤 챕터를 만들든지 해서,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힘들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축산법의 테두리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원택 위원 전향적으로 하라고 그래. 잘 나가다가……

○정희용 위원 그건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들 잘 상의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질의는 쉬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3분 딱 드리겠습니다. 추가 없이 3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금주 위원님 3차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고 한데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더 빈번해지고 더 강력해질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재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보험 그다음에 재난 교부금 이런 것인데,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께서, 아시지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제가 봐서는 가장 큰 게 할증제도인데 재해 난 걸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한번 보험 받았다고 그다음에 또 피해를 받으면 또 할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GDP 규모도 전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을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상시적 기후 재해 피해가 농어민들한테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워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좀 더 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 대안으로 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후 재해 또 재난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대상 품목수도 증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품도 좀……

○문금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해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더 전향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최소 1조 정도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계속 불만인 재해보험에 대해서만 땀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 재해와 관련해서는 다른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농산물 수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계속 장관님 말씀은 자꾸 우리 농어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금주 위원** 물가 안정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국가가 앞으로 더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수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인증면적도 상당히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5개년 계획에 내년도 인증면적 비율도 목표는 10%인데 지금 4.6%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20년도 친환경농업 소득조사를 보면 일반 농산물의 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친환경농업이 생산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지금 이제 상당히…… 농협이 공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기업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이지요.

○**김선교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농협중앙회가 회의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벼 수매 이런 부분도 농협에 많이 전가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협 RPC에서 한 50% 정도 쌀 매입을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지금 벼 수매하는 것이 적자가 농협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절 때면 조합원들한테 떡을 만들어 돌리고 또 무슨 행사 시에는 쌀을 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양평이라는 곳이 친환경농업 특구지역인 거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압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수도권에 식수원 공급을 2600만 시민의 물을 공급하는데 각종 규제는 다 있는데 거기에서, 자구책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일개 농협에서. 그러면 그것을 카페나 건물을 지어 가지고요, 카페나 판매…… 156 농가 정도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일반식당은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또 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식당 좀 하려고 하는데 적자가 한 오륙억씩 나니까, 매년.

이게 토지개혁, 국무조정실인가 TF팀 있지요? 서로 교류 안 합니까, 그런 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합니다. 활발히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을 좀 해결을 해 줘야…… 그것이 아까 얘기한 유통이 뭐 단계가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
까 실질적으로 소고기를 먹는 소비자는 비싸게 먹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
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서농협이에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시간 잘 지켜 주신 김선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역본부에서 답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조류독감은 다음번 팬데믹 감염병을 일으
킬 수 있는 강력한 후보다, 얘기 들어 봤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6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미래 대비를 위한 팬데믹 사이언스 도
약 심포지엄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조기경보 플랫폼 준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은 나름 H5Ny 조류독감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차
원의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주문을
하나면 한국 농림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식약청은 팬데믹 조기경보 플랫폼을 조
직, 가동시켜야 할 때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농장이 가축 표본 검진, 가축 백신 준비, 우유 H5N1 스크린, 바이러
스 염기서열 분석 준비, 정보공유 체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캐나
다, 영국 등과 팬데믹 정보공유 체계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관련해
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도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서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보도와 함께 미국에서도……

○문대림 위원 영국 의학저널 란셋이 6월 8일 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조류독감, 그러니
까 H5Ny 조류독감은 1996년 이래 800명의 사람을 감염시켰고 치명률이 50%를 넘는다
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50%.

위원님, 내부적으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논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역본부
하고 질병청하고 일단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대비책이 준비되는 대로요 저희 의원실로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빠른 준비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님, 경영회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포기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환매를 포기하는 비율 말씀이신가요?

○문대림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거의……

○문대림 위원 한 13% 정도 되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85%……

○문대림 위원 이게 어쨌든 환매 이자를 감면하거나 임차료를 감면하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어떤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농업인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 개혁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아까 오전에 제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과잉이 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정부에서 50% 보전하고 지자체에서 30~40% 하고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한 10~20%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민들도 또 경각심을 갖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예산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양곡관리법의 대체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산림청장님, 옥천군에 산사태 난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산사태라고 분류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주택지……

○박덕흠 위원 옹벽이 무너진 게 산사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게 옹벽이 무너진 이유가 이게 한 20m 된답니다. 산에다가 옹벽을 쳐서 그 위에 주택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것 예견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 20m 높이로 옹벽을 쳤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견된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삼백mm가 왔을 때는 또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데, 물론 인허가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지 같은 경우에 몇 회, 얼마 정도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나요? 지자체한테는 권한이 얼마나 가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천 지역은요, 옥천의 사건 지역은 주택지로 개발을 하면서 옹벽을 쌓으면서……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지를 개발했는데, 지금 논에다가 밭에다가 한 건 아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산지……

○박덕흠 위원 산에다가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산이 완전히 높아. 그러면 그게 옹벽이 한 20m 정도 된다고 소방대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인허가 난다는 게 내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보는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관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는 산지를 택지로 전용할 때 전용 허가와 관련된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허가됐을 때……

○박덕흠 위원 업무 협조를 받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 이후에 옹벽이라든지 설치, 설계와 관련된 것은 또……

○박덕흠 위원 아니, 택지를 할 때 처음부터, 처음에 업무 협조가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산림청장 임상섭 3ha까지는 허가……

○박덕흠 위원 얼마?

○산림청장 임상섭 3ha……

○박덕흠 위원 3ha.

○산림청장 임상섭 3ha까지는 시장·군수가 다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하는?

○산림청장 임상섭 3ha까지……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절대 산림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3ha 이상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박덕흠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얼마로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부처 협의 중이라 저도 정확한 게……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정도로 협의하면, 대략적으로 얼마인데…… 뭐 구체적인 결과야 8월 달에 제출하면서 나오는 것이지만 요청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목표했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년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협의 중이라서요, 위원님. 이것은……

○윤준병 위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뭘 야심차…… 답변도 못 할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야심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쌀값, 한우값 실효적 대책 얘기했더니 ‘수급 관리 참여가 필요해서’ 이렇게 농민이나 한우농가한테 넘기는데 그 참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능력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걸 못 하면 못 했다고 자성을 하셔야지 그걸 농민들이 참여 안 했다

고 농민들한테 핑계를 댈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걸 만들어 내는 것이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 직원들의, 관료들의 책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도적으로 유인 수단 제대로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걸 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선제적 대응 뭐 하면서 안 된 이유를 농민한테 넘기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한우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리고 한우법하고 축산법하고 내용은요, 농식품부에서 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지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의 남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정확히 재의요구였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재의요구라……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을 통상 거부권이라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재의요구라는 말을 써서요.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마시고, 장관이 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법체계상의 문제도 좀……

○윤준병 위원 대통령이 쌀 20만 원 약속 안 했다는 것 좀 틀어 봐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신……

○윤준병 위원 아니, 회복시켰는데 지금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회복시킨 겁니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러니까 산지 수확기……

○윤준병 위원 어디가 산지라고 나왔어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기 수확기 쌀값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은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다시 얘기하면 4월 달에 ‘앞으로 수확기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20만 원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수확기에 20만 원만 앞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래도 근거를 정확히 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 분명히 수확기 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준병 위원 아니, 대통령은 아무 얘기 않잖아요. 어디 수확기 2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이미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 윤준병 위원 아니, 수확기에 20만 원이라고 달성했다고 그럼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4월 민당정 간담회에서……
- 윤준병 위원 그러면 달성했는데 20만 원 내려가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4월 민당정 간담회 결과 정부는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어기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윤준병 위원 20초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기구 10초, 10초.
- 윤준병 위원 aT 이영애 감사 나오셨나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전기찬 참석 안 하셨습니다.
- 윤준병 위원 참석 대상이 아납니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전기찬 예.
- 윤준병 위원 감사는 아니에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전기찬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 윤준병 위원 업무보고는 참석 대상이 아닌가요?
- 이양수 위원 사무실 가서 말씀하세요. 가시라 그러세요.
- 윤준병 위원 이영애 감사……
- 이양수 위원 나중에 하세요, 또.
- 윤준병 위원 다음 16일 날인가?
-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고요.
- 윤준병 위원 16일 날 참석 좀 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전체회의 있거든요.
-
- 위원장 어기구 예, 우리 간사 협의……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진 위원 장관님, R&D 예산이 말이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 이병진 위원 국가 예산에서 14.7%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는 20.2%예요. 그렇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 이병진 위원 이것 불공평하지 않아요? 전 농림식품부가 진력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의원실에 내 주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병진 위원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사랑상품권.

○이병진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언제 시행이 됐어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제가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언제 또 이게 바뀌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도가 바뀐 것어요?

○이병진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병진 위원 2023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작년도.

○이병진 위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지금 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법인 제한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30억이잖아요, 30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자체마다……

○이병진 위원 30억 이상 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쓸 수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제한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30억. 1년 매출 30억 이상.

○이병진 위원 지자체마다 왜 달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웬만한 법인 30억 넘어요, 안 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넘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꽤 많은 게 아니고 다 넘어요. 그렇지요?

시행되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사전 협의를 행안부하고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때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제안해서 바뀐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농자재 판매장, 일부 농자재 판매장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을……

○이병진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지금 영농자재 판매장, 하나로마트, 거의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것 지역외면상품권이 돼 가고 있어요. 수도권 중심적 사고 때문에 이남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소상공인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계속 지금 사실……

○이병진 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만 못 쓰고 다 써요. 그런데 이걸, 농어촌 지역사랑상품권은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 농민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로마트에 갖다 파는데 습인습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농민들 자기 제품도 못 팔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빨리 고민해서 한번 대책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나무의사 제도 알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한 1400명 정도가 나무의사……

○이병진 위원 1379명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병원이 몇 개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한 865개 정도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867개입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진 위원 저 21초만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아닙니다, 안 돼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사업할 수 있는 업역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초기에는 그냥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일반 비전문가가 막 농약 뿌리고 이런 것도 용인했지만 이제는 이분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그것 대책 좀 한번 주시고.

○위원장 어기구 자, 마무리하시고요. 못 다한 얘기는 서면으로 질의 가능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헬기……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이고…… 초짜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 aT가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거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농수산물, 농수산물·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고, 두 번째로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수산인들의 소득도 제고하고 아울러 물가 안정도 가져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aT에다가 2조 660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857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최근에 출판기념회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이만희 위원 또 본인이 경찰에 고발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서 본인이 책자도 보면……

(책을 들어 보이며)

본인의 어떤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aT 대강당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그 본인이……

○이만희 위원 무단으로 문자 넣고…… 나중에 400만 원 반환하셨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나중에 반환한 거 아닙니다.

○이만희 위원 나중에 철저히 조사 잘 받으시고요. 이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21일 날……

○이만희 위원 들어 보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aT가 얼마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해 왔는가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요.

○이만희 위원 말씀 기회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지금 도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원 700…… 한 850명 되는 aT라는 그 회사에서 김춘진 사장 3년간 나간 해외 출장 건수가 707건입니다. 제가 전체 다 받아 봤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이만희 위원 사실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707건을 제가 해외에 나갔다고요?

○이만희 위원 본인이 아니라 aT 직원들이 나간 해외출장 건수를 모두 다 합친 사항입니다. 1년에 무려 253회입니다. 857명의 직원들 중에서 253회가, 그만큼 많이 나간, 나간 사람들 나온 표 좀 한번 보십시오, 블로그. 저게 보고서입니다. 저 보고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전혀 일정표에도 없는 것이 무려 110건에 달합니다.

aT 사장님, 본인은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2년이 지났지만 본인은 지금 3년째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세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3선을 하셨고요. 맞지 않습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왔으면 최소한 본인의 업무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인의 출판기념회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뭘 변소하시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예요? 출판기념회 안 하셨다는 겁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요,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만희 위원 말할 기회 준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제가 하는 질책은 마저 들으세요.

그런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유통구조 활동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농산물에 대한 수급 유통 불안이라든지 물가 불안정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사과 표명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판기념회가 맞습니까, 여기서?

○위원장 어기구 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지금……

○위원장 어기구 aT 사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출판기념회는 제가……

○이만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1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사적인 창작물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출판사에 의뢰했었는데 그게 뭐가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요, 어떤 걸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제가 지적해 드릴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지적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이만희 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한다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요, 저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지적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 위원장 어기구 아니,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를……
-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어기구 아니요, 지금 마이크를 똑같이 지금……
- 이만희 위원 아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 정희용 위원 30초만 더 주지요.
- 이만희 위원 넣어 주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드릴게.
- 정희용 위원 이게 마지막에 저렇게 끝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어기구 자, 30초만 넣어요.
- 이만희 위원 지금……
- 정희용 위원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반문을 해 가지고……
- 이원택 위원 그건 그냥 마이크는 넣지 말고……
- 이병진 위원 아니, 물이 깨지면 안 돼요.
- 정희용 위원 아니요, 화면에 안 잡히면……
- 이만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생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 이원택 위원 아니,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 위원장 어기구 아니요, 자……
- 이원택 위원 정해진 시간에 1분을 추가하는 건데 지금 넘으셨잖아요.
- 이만희 위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어기구 자, 저지요……
-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하면 다 우리 위원님들 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육성으로 말씀드려요?
- 이원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육성으로 좀 더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육성으로 좀 하셨으니까 좀 하시고 그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어기구 자, 시간 배분이 공정해야 되니까요……
- 이만희 위원 저는……
- 위원장 어기구 30초 정도 육성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 이만희 위원 마이크 안 주시고요?
- 위원장 어기구 예,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요.
- 이만희 위원 저는 aT라는 기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제고해야 되고 그리고 사장님의 위치가 지난 정권에서 거기를 와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더 다른 책잡히지 않게 더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하시고 또 직원들이 무려 1년에 257회가 넘는, 250회가 넘는 그런 해외출장을 다니세요.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제대로 된 보고서가 왔는지, 그 출장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검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시고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출판기념회 한 게 뭐가 잘못했느

냐…… 뭐가 잘못 안 했으면 그 고발장 받아 줘니까?

○위원장 어기구 자, 마무리해 주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저……

○이만희 위원 나중에 경찰 조사 하시면서 제대로 변소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변소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어기구 aT 사장, 뭐 할 얘기 있습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번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익명신고가 감사실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상임감사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익명조사…… 익명자가 신고한 거에는 있지 않은 다른 별건조사를 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오늘 KBS에서 보도된 내용만 하더라도, KBS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정보도를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감사에 그동안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정희용 위원 사장님, 짧게 하세요, 그냥.

○이만희 위원 저한테도 답변 기회 주십시오, 예?

○위원장 어기구 자, aT 사장님, 법적인 심판을 받아 보시고요. 여기서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기록 차원에서 장관님하고 그동안 위원님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 중에 정리해야 될 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2011년 이명박 정부 쌀산업 5개년 종합계획은 검토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발표했지요. 당시 기사 검색해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이 안 된 이유는 검토 단계였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101%만 초과되어도 매입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 쌀 수확량이 400만 6000t으로 전년 대비 5.2%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지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것은 17년도부터 19년까지 산림 훼손이 무려 18배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허가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17년도 시설이 어떻게 17년도에 당장 이게 허가가 나서 시설이 되겠습니까? 실제 인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당시 산지의 경사도를 25도까지 개발행위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도로 강화된 조치를 통해서 이후에 산지 훼손을 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한우 수급 조절과 관련된 얘기가 자꾸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자조금단체 법적 지위를 공법인에서, 그러니까 사법인에서 공

법인으로 바꾼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이거는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의논하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됐고 그래서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 사이에 당사자들하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 관리 기능이 온전히 그냥 농가에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8년도부터 한우협회에서 자조금을 활용해서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하겠다는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19년도부터…… 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20년도에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육두수가 늘어나니까 한우협회에서 또다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이게 농림부에서 다시 이것을 오락가락하다가 20년도 말에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는데요.

결국 자조금을 이용해서 농가가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정책에서 오락가락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조금은 원예자조금입니다, 축산 자조금이 아니고요. 19년……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원예자조금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원예자조금……

○임미애 위원 축산자조금이 아닌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축산자조금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농업…… 요지만 읽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농업 후계자를 하다 아빠와 트러블이 있고—이장님이 보내 주신 거예요—축산업 일이 힘들다 보니 후계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 2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후계자를 포기한 것이 후회가 돼서 다시 알아보니 다시는 후계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농림부 보조금도 포기를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영원히 후계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스무 살 아이가 방황을 하고 그래도 아빠 거를 하겠다고 돌아왔는데 후계자를 할 수 없다는 건 시골에서 사형선고입니다. 후계가 55세까지인데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너무 가혹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농해수위에 계시는 위원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지침 좀 완화해 주십시오', 뭐 조금 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사례를 주시면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계……

○**임호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청년 한 분 한 분이 귀한데 지금…… 예, 저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꼭 좀 장관님, 살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험 가입률이 52% 수준이거든요. 1조가 넘게 23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풍수해보험하고 연계되려면 행안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풍수해보험하고 재해보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 재해보험 들 경우에 풍수해보험을 안 듣거나 풍수해보험 들 경우에는 재해보험 안 드는 일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행안부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요. 특히 농가주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의 경우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장관님 좀 긴밀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만 놓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차라리 직접 지원하라는 농민의 주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 손해율이 99.3%인 걸 감안하면 직접지원 주장도 사실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직접지원이라는 건 복구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보험 말고 차라리 그냥 이거를 재해지원과 공제조합 같은 걸 설립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6000만 원 정도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요지인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재해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

보험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쌀값은 우리 농업소득의 주요 소득이고 또 쌀값 보장은 우리 농촌에서 지역소멸,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걱정 쌀값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걱정 쌀값이요?

○전종덕 위원 예, 20만 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2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민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농림부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신지 성함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분이 토론회에 나오셔서 가지고 ‘적정 쌀값은 24만 원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 과장님이요?

○전종덕 위원 예, 기사에 떴더라고요. 농민들은 26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시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20만 원이 마치 적정 쌀값인 것처럼 20만 원을 하나 마냐 이런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쌀값에 대한, 적정 쌀값이 보장되어서 우리 농업들이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혹시 저희……

○전종덕 위원 기사를 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기사로요?

○전종덕 위원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6만 원, 25만 원 이게 적정 쌀값으로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 혹시 기억 있으시면 함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쌀값이 내려가고 수급 조절이 안 되어서 이렇게 쌀값이 잘 조절이 안 된다, 이걸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민이 참여 안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양곡법 관련해서도 거부 의사 하면서 강제 매입을 하면 농업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농지는 최근 10년 사이에 논농사 비율은 줄었고요 그리고 밭농사 비율은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게 강제 매입을 하게 되면 다 논농사로 돌아가서 생산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 속에서 들어 보면.

그러면 의무매입을 했을 경우에 다시 논농사로 돌아간다는 것, 발농사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논농사로 돌아간다는 것 관련한 조사를 해 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실제로 회귀 면적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요, 위원님. 발농사가 논농사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발은 지금 기반 정비율이 66.3%인데 논은 99.3%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농촌에서 쌀농사의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등을 비롯해서 가장 농사짓기가 수월하다고 농민들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의무매입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조사한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발언 속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수급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농민들의 참여가 전제된 수급 관리가 핵심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핵심이다라고 했지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문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고요.

○전종덕 위원 발언 다 녹취되어 있을 거니까요. 발언 속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두 분 간사님들 남으셨는데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기 전데요, 개 식용 관련해서 아까 윤준병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저도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특히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기준과 대상 또 절차, 계획, 로드맵 이런 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개 사육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법 통과시키면서요. 꼭 좀 주셨으면 좋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쪽에서 걱정이 돼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아까 수입업체 현황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분명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업체명이랄까 품목이랄까 수량이랄까 이런 것 좀 꼭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관세청 핑계 대고 넘어갈 일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아까 그 농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수확기 쌀값 20만 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수확기 쌀값 20만 원. 그런데 그걸 보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여기서 뒤 문장 ‘쌀값 하락’에 있는 쌀값 기준은 얼마일까요? 이때가 4월 달이면 17만 원대거든요, 그 시점의 쌀값은. 그 시점의 쌀값일까요, 아니면 20만 원일까요, 뒤 문장에서? 정부가 수확기 쌀값이라는 것을 명기했습니다만 이 앞뒤 문장을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이 앞뒤 문장 속에서 그래도 20만 원대는 유지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신동진, 전라북도의 대표 브랜드인 신동진 아실 것 같습니다. 21년에 쌀값 충격 때문에 다수확 품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퇴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게 다수확 품종인지 아닌지. 다음 PPT를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시비하에 하면 참동진보다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다수확 품종인지 아닌지를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겁니다. 과거에 99년도일 때는 11kg 질소비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수확 품종이 참동진에 비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21년도에 벼 병해충이 있어서 병해충에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면, 여기 하단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청무, 삼광, 신동진, 일품이 있는데 신동진이 잎도열병에 중, 흰잎마름병에 강, 약, 강, 약인데 다른 품종에 비해서 병충해에 약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병충해에 다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신동진을, 전라북도 농민들의 대표 브랜드고 밥맛이 좋고 생산량이 많은데 27년까지 강제 퇴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동진 1호, 전주 몇 호라고 하는, 456호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시장의 반응이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농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장관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종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반응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공공비축미를 줄이겠다, 종자 보급 안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면적을 줄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왜냐하면 그 혼란 속에서 잃을 것은 농민들의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인데요.

농어촌공사 사장님, 장관님.

농지 임대차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 농지를 주변 농부한테 주는데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의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청년농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청년농한테 가져갑니다. 아마 정황근 장관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자금하고 토지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사인 간의 임대차를, 예를 든다면 나를 평상시 케어해 준 농민한테 주고 싶은데 갑자기 다 뺏기는 거예요. 농민의 선택권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것 농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만 명 육성인데 3만 명 육성하면서 토지 확보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농민의 선택권을 잃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 매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좀 점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수료는 위원님, 그게 5% 수수료를 연납하게 해서 매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원택 위원 아니아니요, 매년 5%씩 걷어 갑니다. 원래 7%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5%로 내렸고……

○이원택 위원 21대 때 7%였고 2%를 낮췄고요. 지금은 5%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걷어 가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매년 걷어 가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확인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으로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서해 최북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서해 최북단이요? 백령도 아닌가요?

○정희용 위원 예,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백령면.

○정희용 위원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백령도에 쌀농사를 많이 하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알고 계셨구나. 현장을 많이 아시네요.

쌀농사를 많이 하시는데 서해 5도는 특성상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민간인이 살아야 주민분들이 계셔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위협을 받

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땅,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정희용 위원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마는 이 백령도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타 작목으로 전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쌀 수매의 옵션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 요즘에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이 좀 가중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김춘진 이사장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예.

○정희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정치를 하셨는데 aT 사장님께서 aT에서 출판기념회를 하시면 아무리 초대를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 보면 다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또 농민들이 어렵고, 지금 특별히 회사에서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물론 임기가 다 돼 종료되는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 사장님께서 그동안 거쳐 오신 공직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것 마무리할 때 굉장히 큰 오점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사실 정치해 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출판기념회가 가진 의미를? 이게 자금 마련 아니면 본인의 업적 홍보인데 그것 현장에서 책을 직접 파셨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부적절하지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앞에 사실 현역 의원들한테 출판기념회를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잣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저 말씀해도 좋을까요?

○정희용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우리 공사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사장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언론사에 낸 기고문입니다, 기사가 아니고. 기고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했고요.

그리고 출판기념일 결정한 문자메시지도 내일 출판기념일이면 오늘서야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루 전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희용 위원 그게 하루 전이든 열흘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어기구 출판기념회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아니, 제가 출판기념회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법

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정희용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 사장님이 정치하실 때하고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그래서 제가 임기……

○정희용 위원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어기구 그만하시지요,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aT 회의 출장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707회, 이게 깜짝 놀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뭐 해명하시겠습니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는 수출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외지사도 많이 있고 또 수출 독려나 박람회, 여러 가지 회의에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일할 기회가 많이 있는 재단입니다.

그 결과 100억 달러를 돌파해서 120억 달러를 넘어서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본이 86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 때 정확히 다시 깊게……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이만희 위원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aT 직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은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07회라는 것이 나왔고요. 사장님께서서는 10여 회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고서 자체도 내용을 보면 일정표조차 들어가지 않은 보고서가 무려 110회가 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aT가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수출 전담 기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농수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또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이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올해 2조 6600억 가까이 됩니다. 수출 100억 달러 하려고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원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돌아보면서…… 물론 기후변화, 병충해, 온갖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농촌 현실이 어려웠습니까? 또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고물가, 특히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 폭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장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뭐 어떻냐고 얘기하시지만 aT 사장으로서 퇴임을 앞두고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고발까지 당했다는 그 지점이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은 질의는 국정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3차 질의를 짧고 굵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청장 임상섭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어기구 예, 청장님 말씀……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박덕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권한이 3ha 이하는 시장·군수고 이상은 산림청장이라고 했는데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나에 따라서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나 산림청장이나 이게 다 나뉘져 있습니다, 나뉘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옥천 그 지역은 사면이 붕괴된 지역인데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비탈면이 15m 이하면 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옥천 쪽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박범수 차관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각오라든지, 신임 차관님으로서 오신 것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지적해 주셨듯이 농업 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농민들 아픔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많은 지도 편달 받으면서 우리 농업인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범수 차관님, 장관님 잘 보필하셔서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금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0일 수요일 날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공춘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박수진
대변인 전한영
감사관 박선우
정책기획관 김정주
비상안전기획관 김태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농촌정책국장 김종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축산정책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송남근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항용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곽도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 김명수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임기순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미라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심상택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배재수
 국립수목원
 원장 임영석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고기연
 북부지방산림청
 청장 이용석
 동부지방산림청
 청장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최영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부사장겸기획전략이사 이승재
 기반사업이사 박태선
 수자원관리이사 주영일
 농어촌계획이사 송성일
 농지관리이사 정인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

부사장겸기획이사 기노선
수급이사 문인철
수출식품이사 권오엽
유통이사 김형목
기획조정실장 전기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최창호
사업대표이사 강대재
기획전략상무 성상제
경제사업상무 최선덕
상호금융상무 홍성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이상 6건 6월 21일 회부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농어업회의소법안

(2024. 6.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이상 7건 6월 24일 회부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24.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이상 6건 6월 25일 회부됨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이상 4건 6월 26일 회부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6월 27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이상 4건 6월 28일 회부됨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이상 10건 7월 1일 회부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7월 3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7월 5일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7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3)

6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2024. 6.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4. 6. 20. 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이상 2건 6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6. 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2024. 6. 1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6.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이상 6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2)

이상 8건 6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이상 2건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7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3	-	4	16	5	6	34
해양수산부	4	-	6	53	24	11	98
농촌진흥청	2	-	2	2	5	-	11
산림청	2	-	3	-	-	-	5
해양경찰청	2	-	2	-	15	3	22